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겸주간 이 정 희
편집장 최 원 일
외대신문사(☎962-7128, 961-4161)
외대학보(☎962-7048, 961-416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179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리 30 외대 신문사
한 채 환 김 영 수

563호 1991년 4월9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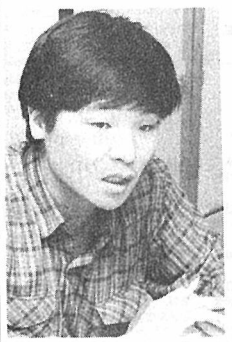
사회진출, 철저히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특별좌담:애국적 사회진출의 방향

80년 광주항쟁을 기점으로 87년 6월항쟁을 경과하면서 학생운동(이하 학운)은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반면 학운 구성원들의 사회진출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그 진출분야 역시 매우 협소했다. 그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여 89년이후 각 학교별로 「애국적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보다 대중적 모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창간 36주년을 맞아 80년이후 학운의 변화과정과 학운의 위치와 역할을 재조명 하면서 올바른 사회진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이번 좌담회를 마련하였다.〈편집자〉

일시:1991년 4월 6일(토)오후4시　장소:전노협 사무실
사회자:황선혜 본보 학술부장　기록정리:박현숙 본보 사회차장



이 경 석
〈졸업준비위원회위원〉

장 계 환
〈일사랑 위원〉

윤 형 진
〈대학원 아주지역학과〉

심 상 정
〈전노협 쟁의부장〉

사회:80년대이후 현재까지 학생운동(이하학운)의 흐름과 방향성, 그리고 그에따른 한계성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80년대 초 소수선진 인자들로 구성된 써클활동 중심의 학운의 형태가 정치적 대격변기를 경험하며 87년을 기해 질적고양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지요. 그후88, 89년을 최고 정점으로 하여 대중운동과 함께 학운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90·91년은 하향곡선을 긋는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윤:제 생각에는 87년이후 질적 고양이 이떠한 형식으로 발전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뚜렷한 전망을 가지며 구체적인 실천사안을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견지하며 실천으로 검증받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보다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전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내부갈등과 사소한 이권경쟁에 얽매였던 것이 지금의 우리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현재 사회활동을 하고계신 심선배님께서 그간 발전해온 사회운동 과정속에서 학운이 차지했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심:80년 광주항쟁을 정점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접어들면서 학운의 두드러진 성장과 아울러 대중운동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으며 85년 구로연대투쟁을 계기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대량 노동운동 진영에 폭넓게 진출하면서 노동운동의 질적비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점차 변혁이론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이 강화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의 결합이 두드러졌고, 87년 6월항쟁이 기폭제가 되어 대중운동이 조직적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간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학운의 위상과 역할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있습니다.

사회: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모임의 결성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자신의 주체성을 견지하며 실천으로 검증받는 자세가 중요

장:우리학교에는 「일사랑」이란 애국적 사회진출을 위한 모임이 있지요. 87년 6월항쟁당시 소위 「넥타이부대」라 부르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면서 화이트 칼라 계층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문제가 제기되어 각 학교단위에서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은 삶이다」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학교를 떠난 이후 사회생활의 터전인 「직장」까지 연속적인 「운동」의 장으로 이끌기위해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해악으로 작용하는 「엘리트의식」과 「중산층의식」을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자의 관점을 담보하여 올바른 사회진출을 해낼 수 있도록 학우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요.

이:그러나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는 선배님들에 의하면, 직장노조활동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직장내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임금인상쟁취등 대부분이 경제투쟁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직장에 들어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 운동이라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장:예, 바로 그 이유도 「일사랑」과같은 모임이 결성되게 된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지요.

이진의 사회진출이 개인적·고립적인데서오는 한계성을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총화함으로써 애국적 사회진출운동을 모색했습니다.

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사회진출하신 선배들의 강연·좌담을 통해 학우들을 올바르게 추동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현재 사회운동을 하고계신 선배로서, 하시는 일의 소개와 올바른 사회활동의 관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심:그동안 노동자의삶을 체험하면서, 실천과정에서 인식과 현장활동만으로 진정한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운동은 어느특정분야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과 조건에 따라 기여할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사회·역사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확고한 실천의지를 통해 변혁운동에 복무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겠지요.

자신의 역량과 조건에 따라 기여할 분야를 찾아야

사회:80년대만 해도 노동현장에 투신하지 않으면 이단시되고 배척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윤선배님께서는 또다른 분야에서 연구활동으로 사회변혁에 복무하고 계신데요. 학문연구자로서의 역할과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시죠.

윤: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중에는 자신이 전체사회운동의 「이론 지침서」를 만든다는 오만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풍토자체가 미제국주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우리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 진교조 선생님들의 「우리교과서」만들기 운동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대되고 있는 정부부자기관에로의 진출은 사회역사발전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예입니다. 자신들이 연구한 통계·자료등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억제와 물가인상을 위한 왜곡된 자료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명백히 관제연구로의 전락을 의미하죠.

저는 제자신이 「운동을 하고있다」고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반도에 사는 주체적 인간으로 서기 위한 노력들을 「나」에 맞는 형식으로 하고 있을 뿐이죠. 사회변혁에 있어 하나의 돌이나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후배·동기들이 자신의 무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기를 통해 사회발전, 나아가 변혁으로 구체적 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회:말씀 잘들었습니다. 애국적 사회진출의 당면과제는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범위내에서 조직적으로 사회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인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36년 외대학보를 지켜온 양심과 진리

——창간 기념일을 맞이하여

외대학보가 창간 36주년을 맞는다.

1955년 봄, 누런 타블로이드 쟁지 위에 첫 활자를 박은 이후 외대학보는 단 한순간의 쉼도 없이 「외대」를 그 지면에 담아왔다.

『외대학보의 역사는 외대의 역사이고, 외대학보의 현실은 외대의 현실이며, 외대학보의 미래는 외대의 미래일 것』이라는 아무개의 말을 떠올려 본다.

「신문은 그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명제속에서 파생되었을 법한 이 평범한 말이 창간 기념일을 맞는 우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 또한 이는 창간 기념일을 맞는 우리가 「생일 맞는 어린애」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와도 직결 된다.

외대학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대학보의 소유주인 외대인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외대인의 실질적인 이해와 요구가 외대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는 학원자주라고 부른다.

결국 외대학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원자주를 가로막는 모든 요인들을 분석, 비판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원의 진정한 자주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외대학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자주언론」이다.

그러나, 「자주언론」은 언론사 스스로가 자주적일 때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 언론사 내부구조가 권력의 외압과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지면에 투영되는 기사에 자주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요즈음 외대학보사 기자들의 「자주언론을 향한 몸부림」은 교정 곳곳에 나붙은 홍보물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을 이곳에 담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외대학보사 자체의 자주성 실현이 압력에 의해서 규제당하고 있음이다. 이것이 외대학보사의 현실이고 이런 구조를 강제하는 것이 외대의 현실이니 창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이 즐겁지 못하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가닥 희망의 빛줄기가 있다.

외대학보가 언론으로써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주언론으로 우뚝서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눈물겨운 지지와 연대가 확인된 것이다.

서명시작 10시간만에 3천5백명의 독자가 기자들의 입장에 지지를 보낸 것은 그동안 수 많은 대학언론 탄압에 대한 대응 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열렬성에 다름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주언론을 억압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을 확인했다.

「외대학보는 그것을 만드는 기자들의 자족물이 아니라 독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모든탄압으로부터 외대학보를 지켜내는 유일한 힘은 독자대중의 힘」이라는 사실을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실례속에서 확인한 것은 창간 기념일을 맞아 독자와 기자가 함께 나눠야 할 가치형유분능의 선물이다.

이제 외대학보는 진정한 자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음을 선포한다.

지금껏 이의 실현을 규제했던 모든 것은 외대학보를 사랑하는 독자들의 노도같은 힘에 의해 산산히 부수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기필코 승리로 이끌고 모든 구조적 비민주성을 척결함으로써 「자주언론, 외대학보」를 향한 독자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외대학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진리, 그 소중한 사명을 띠고…

조심스럽고도 뿌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36년전 부터 벅찬 가슴으로 안아온 우리들의 진리는
외대학보의 삶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가꾸어 준 것입니다.
외대학보가 어두운 시기에도 빛나는 목소리를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외대학보기자들의 요령없는 묵묵한 신념과
1만3천 독자들의 애정어린 다듬이질의 힘입니다.
외대속에서, 외대인의 가슴속에서, 외대 학보의 지면 속에서
오늘도 노력속에 가치를 더해가는 진리를 실현하고자
싸움은 계속됩니다.
외대학보기자들의 펜끝마다, 활자 하나하나에
진리를 아로 새기는 그 소중한 사명으로
외대학보는 쉬지않고
지금도 달리고있습니다.

■광고 우리것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외대학보사

흡산의 소리

흡산(HUFSAN)은 외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교수, 학부모, 바로 이 분들이 「흡산의 소리」를 위어 나갈 주인입니다.

외대학보에서는 학내·외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인정이 넘쳐 나는 따뜻한 사건에 대한 훈훈한 목소리를 「흡산의 소리」에 담고 싶습니다.

200자 원고지 2~7매로 형식은 자유롭고(시론, 편지글 등) 독자만평, 독자 사진도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층 학생 기자실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군사 문화의 확산을 우려하며

—학군 후보생들에게

항상 이맘때쯤이면 학군후보생들의 「충성」소리가 교내를 휩싸고 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군대생활을 경험하였거나 아직 경험하지 않았거나—이런식으로 상급자에 대하여 목청이 터질듯 크게 경례구호를 붙이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는것같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한번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서 군대의 예절을 배워야 하는 후보생들의 고충도 나름대로 이해하지만 교내가 떠나갈 듯이 경례구호를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하급 후보생들에게 고교나 학과선배도 모르게 하도록 교육시킨다니 이럴 필요성까지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스며든 군사문화 군사사상체계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든다. 우리나라의 정치권, 공무원사회, 기업사회, 심지어는 선후배사이나 따스한 사람의 보금자리여야할 가정에서 까지도 명령은 곧 복종이라는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고 상급자, 선배 혹은 부모와 반대되는 합리적 사고는 곧 하극상이라는 관념적 틀에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있다.

필자가 군대생활을 경험해본 바로는 불합리한 상급자의 명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은 잠시 허울좋게 보이다가 결국은 불신의 벽만 높여줄 뿐이다. 하급 후보생들의 경례 소리만큼 상급 후보생들에 대한 존경심은 결코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경례는 상호 존중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강압에 의해서 「목청껏」내지르는 고함은 가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냉전의 냉기는 자유화의 열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동구권의 사회주의의 몰락이 「마르크시즘의 몰락에나, 수정발전이나」의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본능적 인간의 욕망」에 한계를 느낀다해도 「마르크스의 인간신뢰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사상은 결코 변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가치존중과 신뢰회복이라는 마르크스의 정신인 것이다.

이제야말로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된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식을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때가 왔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민주화의 역량으로 「인간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간신뢰」를 더욱 더 고양시켜야 할 때인것이다.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정치, 신뢰받는 사회제도, 신뢰받는 군인,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는 이웃이 되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이라는 큰 사명을 목전에 두고있다. 통일은 아무런 노력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서로의 신뢰회복을 위해 열과성의를 다할 때 통일은 한층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사회 구석구석 뿌리깊게 박혀있는 일본 통치하의 잔재를 청산하고 기존의 군사문화에 대한 완전한 해체를 이루지 못할때 「제2, 제3의 수서사건, 페놀오염사건」만 일어날뿐 「인간 대 인간의 신뢰구축」은 요원한 것이 되고 통일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통일을 「위한」군대여야지 통일을 「방해하는」군대가 아니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군내부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후에 군에서 지도자로서 일익을 담당할 후보생들도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작은 성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 버리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겠다.

〈서양·서반아어4 이인수〉

독자 만평

우리 신문이 이렇게 컸어요

〈자연·화학2 이희관〉

외대인의 눈·귀·코가 되고 똑바로 말하는 입이 되겠다.

—서어91—

걸프전에서
미(美):나 사람 안 죽었다.
학보기자:그래도 시체는 보이던데!

—외국수—

모두를 위한 광고문화 창달에 앞장서겠다.

—들리자 당구장 주인—

진실로 진실로 노력하는 기자가 되기를

—S—

곧대 뽑은 기사말고도 30명이서 4명때린 기사도 싣겠다.

—경제90—

누가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크게 믿고 성큼성큼 정진하겠다.

—잘난이—

매일 매일 신문을 만들어 모든 외대생을 기쁘게 해 주겠다.

—내가—

주제:내가 외대학보 기자라면

다음주 주제는 「총장님께 드리는 개교기념사」입니다.

작은것을 크게, 큰 것을 작게 보도하기 보다는 옳은 것은 찾아서 무조건 모두 큰 소리로 보도해야지.

—외돌이—

외대인을 위한 외대인에 의한 외대인의 신문을 만들어야지 뭐.

—왕산인—

돈 많이 주는 광고 대행사랑 계약해서 우리들의 배를 두둑하게 할걸!

—대학당국—

해곡된 진실 앞에서 무릎을 굽히는 기자가 되기 보다는 곳곳이 서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회의 목탁이 될 것이다.

—외대 학우—

우리과 이야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싣겠다.

—화란인—

잃어버린 후배

—악습에 희생되어 가는 후배를 되찾고자

북학한지 벌써 일년이 지나고 다시 또 새학기를 맞았다. 입학했을 때보다 더 어색하고 얼떨떨한 기분으로 지내버린 일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니 후배를 잃어버렸다. 누구의 잘못인가? 책임의 소재는 나자신과 후배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우울한 기분을 한층 더 북돋우는 것이 요즘 심심찮게 입방에 오르내리는 제복을 입으신 우리 ROTC후배님들이다. ROTC4학년이라고해야 88학번. 나에게 있어서는 모두들 후배들이고 이제 막 ROTC생활에 분주한 3학년 역시 나의 후배들이다. 그런데 요즘 이 3, 4학년 ROTC후배님들이 몹시 선배님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4학년들은 최고의 학년이라서 그런지 여유가 있으나 신참 3학년들은 요즘 결눈질할 여유도 없이 직각보행과 안면몰수로 전혀 대학캠퍼스에 어울리지않는 새로운 이질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군대를 갔다온 나이기에 이들의 생활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기에 더욱 쓸쓸하고 비애에 젖게된다. 그렇듯 명랑하고 활달하던 녀석들이 대리석같은 생활을 병영도 아닌 대학캠퍼스에서 치뤄야하니 바라보는 선배의 마음은 아프기만하다. 같은ROTC선배만 선배이고 같은 과 같은 동문선배는 선배도 아니란 말인가? 같은 수업을 받으며 같은 생활권의 후배들이 제복의 착용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되어 타의에 의해 남이 되어버려 인사하기가 오히려 미안해 외면해야하는 이 기분은 말로써 형용하기 힘든 아픔이다. 이들은 지금 프레이저이론(어느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혹한 벌을 받아 새로운 정신을 주입하는 것)에 따른 신고식 내지는 신래참학(新來慘虐)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민주화된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가혹행위인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학군단장님 사단장님 참모총장님 모두가 지시한 바 없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악습인 것이다. 일제군대의 악습의 잔재를 우리학교에서 만들은 학군단장님의 지시하에 뿌리를 뽑아 함께 어우러지는 선후배로 남아 앞으로 학군단에 들어갈 여러 후배들은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한다. 답답한 마음에 애꿎은 학군단후배님들을 욕보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 금할길이 없다. 섭섭한 마음은 부딪히는 술한잔으로 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못난 선배라 노력은 하지만 역부족이니 부대껴 오는 후배님들이 많았으며 좋겠다. 『송준아 4월초에 동문회 한다.

〈동양·중국어3 이치환〉

참기 어려운 학내 소음 공해

마지막 1년 남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외대내에서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차피 이러한 것들은 단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려운 일이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 지난 3년간 목과해 온 것이므로 1년만 견디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후배들의 발전과 모교의 성장을 바라는 뜻에서 감히 충언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는 자타가 인정(?)하다시피 협소한 캠퍼스 공간으로 그로 인한 소음공해가 심한 편이다. 방송 설치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외대인 서로서로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노천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문화행사는 그것도 대학문화의 일면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러동아리인들의 비공식적인 모임까지도 지나친 스피커 사용으로 사회과학관의 강의나 도서관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심하게 해치고 있다. 공식적인 행사마저도 되도록 오후3시 이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나는 스피커 공해와 끊이질 않는 사물패들의 악기소리는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학생은 뭐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기성세대들의 잔소리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내는 소음공해(?)가 중요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환경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대학인이라면 그 정도는 지켜낼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협소한 캠퍼스내에서의 더 이상의 소음으로 인한 방해는 자제되어야 한다.

〈서양·영어4 김영성〉

권위 주의에 찌든 동문회

매 학기 초가되면 온교정은 벽보에 몸살을 앓게된다. 그중에도 고등학교 동문회 벽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교정 여기저기에서 동문모임으로 분주해진다.

지난 목요일(3월 28일)저녁10시쯤 교문을 나서려 할때 수위실앞 도로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되었다. 어떤 한 학생이 도로 한가운데 머리를 땅에 박고 열중쉬어(원산폭격)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옆에 선배인듯싶은 사람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그것을 말리려고 하였고 이때문에 두사람간에 시비가 벌어지는 장면이었다.

그장면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했다. 이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군사문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는것 같았고, 더구나 학원에서 조차 어떤 문제의식 조차 느끼지 못한채 선배의 권위로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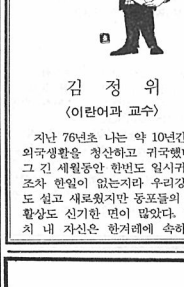
이러한 모습은 비단 동문회에서 뿐만아니라 동아리의 일부모임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보면 안타까움과 함께 빠져린 각성과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든다.

더구나 군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침에의한 횡포를 줄여나가고 있는 지금 가장 날카롭게 꼬집고 비판과 변화를 모색해야 될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쩌면 이런 모습이 밋(?)으로 통용될지도 모르지만 이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민족적 관행을 만들어내는 군문화의 권위주의적 망상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동문회와 같은 좋은 근거의 모임이 보다 민주적 방식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울어짐의 공동체로 뿌리내릴수 있는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동양·일어4 정 장석〉

明水塘 명수당



대화속의 일반호칭

김 정 위

〈이란어과 교수〉

지난 76년초 나는 약 10년간의 외국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그 긴 세월동안 한번도 일시귀국조차 한일이 없는지라 우리강산도 설고 새로웠지만 동포들의 생활상도 신기한 면이 많았다. 마치 내 자신은 한거래에 속하지 않는 양 착각할 정도로 색다른 점이 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날 당시 국민학교에 다니는 조카 형제 두 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오가는 말이 내가 살았던 나라의 어린이들과는 꺽이가 달랐다. 내용 보다도 그 어감이 다른 것이었다. 5학년생인 형은 3학년인 동생 앞에서 자신을 「내가」로 말하지 않고 항상 「형이」로 표현했다. 동생녀석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거리낌없이 받아들였다. 그후 주위사람들의 대화를 눈여겨들어보니 자신을 지칭할때 대체로 「내가」대신에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말한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에서 부모는 자셀을 「아빠가」 「엄마가」로, 또 올케가 손윗 시누이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남편을 「형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인도·유럽어 계통의 언어나 셈계 언어의 문장에는 주격 표시의 대명사와 그에 따른 동사로 활용됨으로써 1인칭과 2인칭의 구별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의 인칭변화에 따른 동사활용도 없고 또 1인칭과 2인칭을 부르는 일도 가능하면 삼가는 것이 일상대화 습관인 것 같다. 직장이나 사교적 모임에서 손윗 사람이 부득이 손아래 사람을 불러야 할때 미스터○○○ 또는 미쓰○○○등 외국어 호칭을 동원하며 손아래 사람은 손윗 사람을 ○○○과장님 또는 ○○○부장님 등 직함을 붙여서 부르는 일이 보통이다.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눌 경우 우리말과 우리 관습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또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먼저 의식하여 말하는 것 같다.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소한 사이의 대화에서 사제지간도 아닌데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은 적어도 표현상으로라도 관계를 엮어 매려는 풍토가 나야 하겠다.

사회와 교육의 바탕인 부모와 자식간,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속에서나마 우선 1인칭, 2인칭이 애용 되어야만 인간적인 대동합이 향상되고 또 유대관계도 부드러워질것이다. 또 세대차의 극복도 바라볼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 길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사회 민주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외대학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았습니다

10 시간만에
3천5 백명이…

외대학보사 기자들의
「광고질서바로잡기운동」에 보내주신

독자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도 기사의 1/3임을 대전제로
광고지면을 진정한 독자들의 이해에 부합되는것으로
만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우리운동의 내용은
「광고내용의 건강성 확보」「악덕광고대행사 추방」이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광고계약에 있어서 편집장 참정권 보장」과
「민주적인 계약원칙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에 대한 외대인의 지지도는
불과 10시간만에 3천5백명 서명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일을 하라』시며
장승 앞을 지나시다 쾌히 서명해 주신 교수님,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던 직원선생님,
『우리가 있으니 걱정말라』며 이온음료를 사다주던 한 학우,

교수·직원·학생등 독자 3주체의 미더운 격려가 있기에
우리 운동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외 대 학 보

전대협 11·12일 대의원대회 개최

의장·부의장 선출및 총노선 결의예정

4월 호소문 「노정권타도 민주정부수립」요구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과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이 지난 3월29일(금)과 30일(토) 양일에 걸쳐 각각 서울대와 용인군 강남대에서 전체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의장·부의장 선출과 90년도 투쟁평가 및 91년도 총노선을 결의한데 이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전대협)가 오는 11일(목), 12일(금)이틀에 걸쳐 연세대에서 전체 대의원대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거와 출범식일정, 90년도 투쟁평가및 91년도 총노선 수립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대협 의장으로는 전대협 임시의장인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서충련의장이 가장 유력하며, 부의장엔 이국형(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용성총련 의장이 후보에 올라 있다.

91년도 국제정세는 크게 동구사회주의권의 혼란을 틈타 미국주도의 국제역학관계, 미국의 걸프전쟁을 통한 자국우위체제 유지,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의 공고화와 남한전 미파쇼정권의 안정화, 대사회주의 공세의 강화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조성된 국내정세는 정권의 배판재벌에 의한 일방적·특혜적 지원, 전체민중과 미제와의 본질적 대립, 미·노정권의 보수대연합 구도와 민중의 민주대연합 구도의 전면적 충돌로 규정되어 진다. 91년도 투쟁총노선으로는 대중운동의 의식화와 조직화 강화 미·노일당의 장기집권, 영구분단음모 분쇄, 자주·민주·통일의 총체적 정세와 민주대연합의 토대 확보등이 요구되어 진다.

한편 전대협은 지난 3일(수) 4월투쟁 호소문을 통해 현정세를 미·노일당이 전례없는 사상적 공세와 파쇼적 폭압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고 수서비리 진상규명을 통해 노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기초의원 선거를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지게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노정권을 규탄하며 민중생존권 쟁취와 민주정부 수립투쟁에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용성총련 민운탄압 유인물 성남배포

본교생 80명을 비롯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소속학생 4백여명은 수서비리 규탄, 민족운동탄압 등 10여가지의 유인물 10만장을 성남 전지역 및 광주 일부지역에 배포했다.

유인물 배포 선전전은 용성총련 선전시업의 일환이며 매달 한번정도 10만장 이상을 성남지역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경희대 수원캠퍼스, 대한체육과학대학, 강남대 등은 용인과 신갈 등지에서 유인물 배포, 선전전을 가졌다.

서울 여학생위원회 외알 3호 발행

서울캠퍼스 여학생위원회를 어제(8일)「외알 3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여학생위원회 집행부원 소개, 여성관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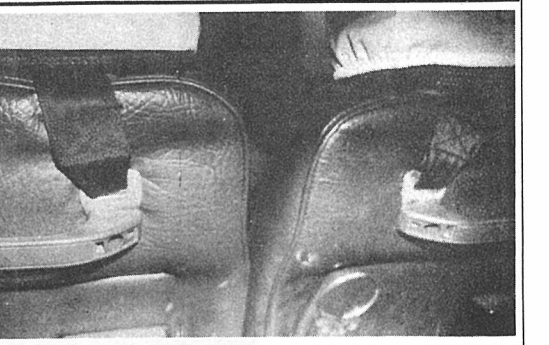
서울 졸준위, 졸업생 사진촬영 일정공고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4학년 앨범 사진촬영 일정표를 공고 하고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촬석하여 촬영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각 과별 사진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15일(월)—영어과 △16일(화)—사범대학 전 학과 및 이란어과, 정외과, 베트남어과 △17일(수)—독일어과, 불어과 △18일(목)—법대 및 마인어과, 터어키어과 △19일(금)—경영학과, 신방과, 화란어과, 포어과, 스웨덴어과 △29일(월)—중국어과, 경제학과, 이태리어과, △30일(화)—서반어과, 행정학과 △5월1일(수) —무역학과 노어과, 인도어과 △2일(목)—아랍어과, 노어과, 인도어과 △2일(목)—아랍어과, 태국어과, 일본어과

촬영 장소는 명동 세종호텔 뒤편 아트(ART)스튜디오(773-5552, 757—8381)이며 시간은 오전10시에서 오후6시까지 실시하고 복장은 정장을 하여야 한다.



초점

아침, 저녁 승차전쟁으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용인 캠퍼스 학우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다.

많은 학우들이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용할 수 없게 의자 뒤에 고정을 시켜놓은 것이다.

아직 사고가 없어서 앞으로도 사고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솜씨가 인간의 생명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것인지 기사 아저씨에게 묻고싶다.

〈주재영 기자〉

서울, 정기확대운영회의 열려

7일 등투평가 가학생추진위논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4월 7일(일) 오후1시 대학원 소강당(6104)에서 각과 대표등 운영위원 3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91년도 1학기 정기 확대운영회의」를 열고 등록금 투쟁평가, 정기학생총회 개최, 사업계획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벌였다.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등투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원택(상경·경제4)총학생회장은 『지난해 등투가 많은 학의 사항을 갖추었지만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며 『이후 학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각과 주체가 성립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를 제안하고 이후 논의를 벌일것을 당부했다.

학우위 제안에 대해 준비주체를 맡아온 김의연(서양·서어4)군은 『89·90년 계속 되어온 범민족적 통일 운동을 발전시켜 이제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사업을 벌여야 할것』이라며 『각 단위 대학, 과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하여 집행력까지 갖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확대운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오늘 (9일) 열릴 정기학생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용인 교통문제 진전없어

구체적 대책마련 시급

성남지역 지하철공사와 성남—광주간 산업도로에 골프장 진입로공사를 실시함으로인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교통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과 학생대표가 참석하는 「교통문제대책 소위원회」의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21일(목) 이국형(인문·청학4)총학생회장 명의로 대학당국에 「학생측 질의서」를 전달한 이후 3월27일(수), 4월4일(수) 두번에 걸쳐 「교통문제대책 소위원회」가 열리긴했으나 모현—학교간 요금인하, 동서울—학교간 배차간격 조정 등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논의로 회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대해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 김대민(동학·마인어4)군은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뿐만아니라 저녁 9시30분 막차의 경우 차가 너무 붐벼 많은 학생들이 타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후 구체적인 실태 조사작업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줄이도록 대학당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침—

지난 562호 3면 「일본어과, 박필수강연에 반발」기사중 「일본어과 학생들을 비롯한~」부분은 일본어과 학생들이 침묵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고, 11면 「이사람」에서 「통계학과 사무실~」을 통계학과 세미나실로 바로 잡습니다.

임금협약 3차 교섭열려

타협안 찾지 못하고 난항거듭

대학당국과 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화)임금협약 제3차 단체교섭을 마쳤다.

임금인상률과 후생복지제도, 기능직의 1년승급적용 호봉을 놓고 벌이진 이날 교섭은 양측의 의견대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에 불과했다.

이날 직원노동조합은 『91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대학당국의 임금에 대한 부담 능력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으나 대학당국은 『아직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예산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률 결정은 무리』라고 밝혔다.

직원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원노동조합이 올해부터 제기한 정액 3만2천원에 대해 대학당국은 절대 불가 사세로 맞서고 있다.

또한 대학당국이 공무원 임금인상률 9%를 적용해 내놓은 임금인상률 12.7%와 도시근로자의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직원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17.0%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89년 단일호봉제 실시로 인해 나타난 기능직원의 1년6월 승급적용 호봉을 개선하고자 하는 직원노동조합의 의견은 대학당국의 재정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인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89년 이후 나타난 사무직과 기능직간의 잦은 부서이동, 직원 감원시 부서전보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도 직원노동조합은 대학당국에 합리적 배안을 요구했다.

대학당국은 이에 대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기구축소를 피할 수 없고 사무직과 기능직의 비슷한 업무로 부서이동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생계비를 받고 있는 상위체계들이 표준생계비를 못받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을 무시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은 기만적 처사』라고 주장하는 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대학당국은 『직원뿐 아니라 교원도 표준생계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대응하고 있다.

제정월급을 가장 큰 협상조건으로 여기는 대학당국과 제도 개선 확보를 요구하는 직원노동조합의 의견차이로 91년도 임금교섭은 앞으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단체교섭은 오는 10일(수) 벌어질 예정이다.

사 령

임

수습기자
고연미(동양·일어1)
권동순(동양·이란어1)
김귀천(동양·터어키어1)
김미화(서학·독어1)
김인자(동학·마인어1)
김현정(서양·스웨덴어1)
김형미(동학·일어1)
노재봉(서양·화란어1)
박준모(상경·경제1)
조수영(사범·불교1)
조정호(서학·영어1)
차승천(서학·서반아어1)
〈이상 12명 4월9일자로 임〉

빈의자

죽은 아이와 탁아소

▲사람의 명(命)이란 길고도 짧다. 엄마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0.8세나 된다고 한다. 의학수준의 발달도 있겠고, 생활이 이전보다 풍족해졌다는 것도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평균에도 못미치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5살의 어린나이에 3명의 어린이가 가기 싫은 길을 가고 말았다. 의학수준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족해졌는데도 3명의 아이들이 70세도 못채우고 비명횡사를 했다.

▲지난 달 30일 5살난 세쌍둥이가 방안에서 불장난을 하다 그만 이불에 불이 옮겨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질식사를 하고 말았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집에 놔두고 나가야 했고, 그냥 나가자니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잠근것이 영영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게 하고 말았다.

탁아소만 있었으면, 탁아소가 아니라도 잠시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탁아소가 활성화 된것은 1970년대이며 그때는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60~70년대 경제생활의 향상과 자녀교육등을 목적으로 상경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생활의 낙후와 자녀교육의 부재라는 결과를 맛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게된 빈민지역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계속적으로 빈곤계층이 밀려들어오면서 삶의 터전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철거에 철거를 당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자녀의 교육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히 아이들은 방황하기나 아예 집에 갇혀 있게 되었다.

▲빈곤지역의 방치아동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물론 아동의 보호·양육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 충분한 관심을 줄수없는 상황일때 국가는 그것을 충당해야 한다. 영리화 탁아소만 늘어는 것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탁아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참긴 방안에서 늙어야 하는 아이들을 맑고 건강하게 키울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하는것이 우리의 아이들이 문이 잠긴 방안에서 죽어가야만 하는 비극을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하기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것이다.

〈주재영〉

외대학보 창간36주년 기념행사

외대학보사는 창간36주년 기념일인 오는 4월11일(목)을 전후하여 서울·용인 양캠퍼스에서 문익환목사, 이문옥 전 감사관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1만3천외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창간 기념행사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용인:이문옥 전 감사관 강연
—10일(수)오후3시 평수당앞 야외무대
▲서울:문익환 목사 강연
—12일(금)오후2시 노천극장

외 대 학 보

향수도

▲오늘, 서울 정기학생 총회 개최
—통일의 신새벽을 안아올 단일대오 준비완료./
▲오늘, 신민주연합당 출범
—메고픈 고향이의 매듭은 법 사냥
▲주한 미군 2천년 후도 계속 주둔
—한반도 영구분단은 미국의 적은 소망이랍니다.

정론직필의 선봉에 서온 외대학보사가 진한 말부림을 시작한지 36주년이 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대학언론탄압의 강한 마파람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긴 했지만 꿋꿋히 견뎌온 외대학보사였습니다.

투쟁속에 단련된 외대학보사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작금의 광고질서회복운동을 진행하는 기자여러분께 진한 동지애를 띄웁니다.

광고질서회복운동은 잃었던 지면의 1/3을 되찾고 올바른 대학신문의 광고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대학신문에 운명적으로 불었던 바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고질서회복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외대학보사의 투쟁은 더욱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서대기련을 넘어 전대기련의 모범으로 우뚝서길 바라며 건강에도 신경쓰길 당부드립니다. 투쟁!

동부지구 — 건대신문사·대학주보사·서울시립대신문사·서울여대학보사·세종대학보사·한대신문사·서울산업대신문사

신분 지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고는 그 간 기자들의 인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서서히 광고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대 신문사 광고싸움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문 지면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광고대행사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못한 대행사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신문을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는 학생기자는 광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권한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대신문사의 광고싸움을 서대기련 북부지구 기자동지들과 함께 적극 지지합니다.

북부지구 — 고대신문사·광운대신문사·국민대학보사·국제대학보사·덕성여대신문사·동덕여대학보사·성대신문사·한성대신문사·성신여대학보사

외대학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았습니다

광고도 지면이다.

89년도 '광고질서회복운동'이 대학신문에 제기된 이후 대부분의 대학언론인은 광고를 상업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대학보 36주년.

3분의 1의 지면을 되찾기 위해 낮밤을 지새우는 외대학보 기자 동지들이 맞이한 36주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지난한 선배 열사들의 자주 언론 쟁취의 투쟁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살아있기에 36주년이 주는 무게감도 마음의 부담이 아닌 격려로 선배들의 독려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민족 자주 언론의 선봉에서 민족과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나설 여러분의 패기를 믿으며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길 기원합니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성대신문사 김기헌

시리도록 푸른 하늘에 뿌연 최루탄 가루 날리는 투쟁의 달 4월에 맞는 외대학보의 창간 36주년 소식은 투쟁으로 피곤한 외대학우들에게 잔잔한 봄소식으로 다가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창간 축하말처럼 부드러운 칭송과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창간기념 특집호를 내기 위해 기사 뿐만 아니라 광고까지 제작해야 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의 수많은 어려움이 눈에 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의 외대학보 광고투쟁은 그간 외대학보 36년의 주름속에, 외대인들의 피땀과 성취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민중의 참 아들 딸이 되고자 걸어왔던 외대학보의 험난한 세월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외대인들의 옳곧음을 대변하는 광고를 싣기 위한 외대학보의 광고싸움이 승리하길 기원하며 다시한번 외대학보의 창간 36주년 맞음을 축하드립니다.

남부지구 — 단대신문사·대학신문사·동대신문사·서울교대신문사·숙대신문사·숭실대학신문사·중대신문사·총신대학보사·생의학보사

학우들의 기쁨과 고민을 함께하는 성실한 자세로 뛰어온지 어느덧 36년./

36년의 주름속에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민중의 참 일꾼이 되고자 걸어왔던 외대학보 기자동지들께 진심으로 창사 36주년을 맞이함을 축하드립니다.

진정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억압과 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1/3광고면까지 선전선동의 지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대학보의 기자정신은 대학신문이 요구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대학보는 독자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신문임을 확신하여 정론직필의 펜대를 우뚝 세우길 바랍니다.

서부지구 — 명지대신문사·상명여대학보사·서강학보사·연세춘추사·이대학보사·추계예대학보사·항공대학보사·홍대신문사

걸프전후 변화된 세계를 살펴본다

소련의 쇠퇴와 동구유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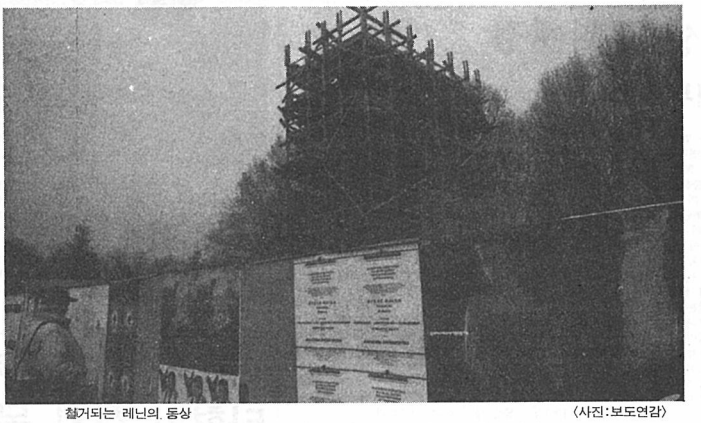
정 호 영

1989년 가을 폴란드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동유럽의 개방과 개혁은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유혈봉기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2차세계대전 후 동유럽 국가들에게 이식된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이들 국가에서 점복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들은 게속된 경제침체로 인한 생활의 궁핍화와 전통적으로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동유럽 국가들의 몸부림이라고도 하겠다.

동유럽 국가들에서 개혁과 혁명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서방측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여전히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서방측이 자본공세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동유럽의 꿈이 서방측의 이러한 강요 앞에서 무너지는 인상이다. 더욱이 걸프전에서 승리하여 뺏대가 높아진 미국은 화보된 원유의 통제권을 이용하여 동유럽의 경제를 입맛에 맞게 재편하리라 예상된다.

동유럽 대변혁의 의미

「동유럽 변혁의 모든 것은 고르바쵸프의 등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시각이 서방에서는 일반된 견해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말은 2차대전이래 소련이 동유럽에 끼친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동유럽을 서방세력과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이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는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정책기구이며 이를 통해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 관계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소련의 지도적 입장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의 수호라는 명목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브레즈네프의 〈제한주권론〉은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던 것이 고르바쵸프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988년 3월〈신베오그라드선언〉을 통해 동유럽은 독자적인 길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며, 1989년 7월 바르샤바조약기구 폐막성명에서 『사회주의에는 기계적 모델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느 나라도 진실을 독점할 수 없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동유럽 간의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관계로 재정립함으로써 각국이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나아가 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체재로의 발전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지금까지 소련과 동유럽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소련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소련의 구심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볼 때, 헝가리, 폴란드에서 시작된 개혁의 물결이 루마니아에서 유혈봉기를 거쳐 차우셰스쿠 정권을 무너뜨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확실히 동유럽의 대변혁을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이를 기조로 한 신사고의 산물인것은 부정할 수 없겠다. 그러나 1956년의 부다페스트, 1968년의 프라하의 봄, 1981년의 바르샤바로 이어지는 동유럽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동유럽의 변혁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해 주고 있다. 오히려 이번 변혁 운동은 동유럽 인민들이 경직된 스탈린주의적인 체계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동유럽 국가에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개혁 움직임은 이미 30여년 전인 1956년부터 일어났었다. 비록 이 움직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 각 나라에서는 스탈린식 체제를 탈피하려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의 대변혁도 그 뿌리를 1956년의 개혁운동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동유럽의 대변혁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지배권력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유럽 인민들의 개혁의지에로부터 시작되었다.



철거되는 레닌의 동상 〈사진:보도연감〉

최근 동유럽의 개혁현황

동유럽 개혁의 상황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정치에서는 일당독재에서 다양한 정당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로 전행되고 있으며, 경제에서는 중앙집중화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진행된 변화의 폭이 다르지만 폴란드,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비해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모두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수반되는 갖가지 문제(실업과 인플레)나 모순이 뛰어나와 예외없이 정체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헝가리의 경우 작년 여름 이후 걸프전쟁의 발발, 동유럽 무역체제의 붕괴, 전후 최악의 한발 등 삼중고로 경제가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공산당 정권의 붕괴와 함께 민족적 감정을 비경로 하는 양 공화국 간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어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달리 정치적인 일치마저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어 헝가리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는 안정된 개혁 속에 차분히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바웬사 대통령은 마조비에츠 전수상의 긴축정책덕분에 한때 2천%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율이 최근에는 수%로 내려앉았으며, 화폐 즐로티(폴란드 화폐단위)를 단호히 절하하고 암달러 환율을 공정환율로하여 암달러를 일소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앞의 세나라에 비하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정치민주화와 경제개혁이 좀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큰 격차가 있으며 이제 막 개혁의 길로 들어선 알바니아와 함께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리라고 생각한다.

무너지는 소련의 영향력

동유럽권 나라들이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경제체제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회원국들은 1월5일 코메콘의 해체를 선언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기구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발표된 성명에 의하면 새로 창설될 기구의 명칭이 국제경제협력기구(OIEO)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기구는 「소련,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몽고, 폴란드, 루마니아, 쿠바, 베트남 등 9개 공산권 회원국에서 지난 수년 동안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가 무너진 이후 서방의 경제체제와 더욱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유럽을 지향해 온 두 기구 중의 하나인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조직도 4월1일을 기해 사실상 해체하고 만다. 군사조직이 해체된다고 해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전면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메콘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현저히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조직과 군사기능의 종식은 그동안 동유럽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었던 법적 구속력이 사라져 동유럽 국가의 실질적 주권의 회복이라는 데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이번 걸프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소련은 시종일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으며 전쟁이 끝난 후 외교전에서도 미국에게 밀리는 나약함을 드러내었다. 비록 중동지역이 전통적으로 서방의 세력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걸프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소련의 모습은 이제 소련이 초강대국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만을 고수하기에 바쁜 나라임이 밝혀진 것이다. 소련이 중동에서 보여준 나약함을 그대로 동유럽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동유럽에서 소련의 역할은 과거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휘두르며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은 명정한 사실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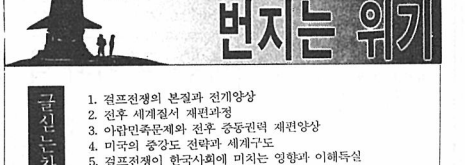
강화되는 자본공세

결국 동유럽에서 쇠퇴해가는 소련을 대신하여 동유럽의 공백을 메꾼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자본이었다. 동서간 합작투자에서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소련과 동유럽에 등록한 합작건수는 1988년을 기준으로 총 374건으로 소련에 162건을 제외한다면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33건, 일본:17건 체결)그런데 합작기업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1989년에는 합작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808건에 이르게 되고 이때부터 서방은 다시 동유럽경제를 휘청거리게 하였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난국타개의 한 방법으로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종속의 시작이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원조는 동유럽국가들이 건설하려던 독자적인 사회주의의 꿈을 짓밟고 자본주의 경제질서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동유럽은 어디로

198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게속된 경제침체는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낳게 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은 급격한 개혁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동유럽 국가의 개혁은 경직된 스탈린체제의 비판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개혁의 목적은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통한 동유럽 경제의 회복에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에 대한 동유럽 인민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

서방자본 시장경제도입으로 파산위기 직면한 동유럽
소련,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로 영향력 감소



글싣는 차례

1. 걸프전쟁의 본질과 전개양상
2. 전후 세계질서 재편과정
3. 아랍민족문제와 전후 중동권력 재편양상
4. 미국의 중앙도 전략과 세계구도
5. 걸프전쟁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득실

〈보론〉걸프전쟁과 동구유럽의 변화양상

「광고질서회복운동」은 우리들이 학원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동양어대 학생회—

눈을 겨운 외대학보의 「광고질서회복운동」을 피로써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동양어대 이란어과—

「광고질서회복운동」은 학원 자주화 투쟁의 일환입니다.

—제25대 총학생회—

외대학보의 「광고질서회복운동」에 박수를 보내며 참된 민중언론으로 우뚝 서는 학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끝까지 투쟁하십시오.

—서양어대 러시아어과—

외대학보의 「광고질서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전합니다

—사범대 영어교육과—

외대학보의 「광고질서회복운동」 진정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며 열렬히 지지합니다.

—동양어대 터어키어과—

우리의 목소리 외대학보의 어느 면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동양어대 태국어과—

1만3천 외대인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외대학보—

외대학보의 「광고질서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땅의 참언론 자주언론의 기수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서양어대 서반아어과—

6백여 열혈 청년 법학도는 외대학보의 「광고질서회복운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수많은 법대 여학우들의 미남 편집장님에 대한 열렬한 지지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법대대학 법학과—

민주 언론, 민중의 언론을 위한 여러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외대 이문 7천여 학우들의 지지속에 승리할 것입니다.

—동양어대 아랍어과—

외대학보의 「광고질서회복운동」을 끝까지 지지·지원·성원하겠습니다.

—동양어대 인도어과—

우리학보의 1/3을 차지하는 광고란을 돈몇푼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새날전진 이데리이과

외대학보의 광고 우리것 찾기운동을 불어과는 지지합니다.

—해방 불어과

「광고질서회복운동」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며 학원의 자주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몸소 실천하시는 학보 일꾼 여러분께 존경과 꼭 승리하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학생위원회—

민주 언론, 민중의 언론을 위한 여러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정론직필」또한 지지하겠습니다.

—동양어대 중국어과—

외대학보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학보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학원 자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큰 몫을 담당할 것이기에 이를 적극 지지하며 참언론의 선봉대로 끝까지 싸울 학보사와 항시 같이 하겠습니다.

—서양어대 학생회—

외대학보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광고질서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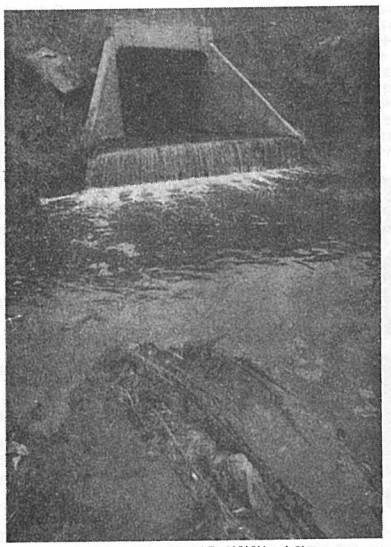
—동아리연합회—

「광고질서회복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시는 외대학보 여러분에게 힘찬 지지를 보냅니다.

—정책과학대 신문방송학과—

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응과제 ㊤

——한국 환경문제의 실상을 살펴본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치로 올라서고 있다. 〈사진:시사저널〉

최근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식도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물, 공기 등을 비롯한 환경요건들의 오염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알아 보고자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무형 그리고 생물, 무생물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환경」이라 한다. 우선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연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자연정화작용」이란 것을 지니고 있다. 이 자연정화 작용은 자연 스스로 어떤 오염물질이나 자연훼손에 대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작용에는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작용과 그 밖의 여러작용이 복합된 오염물 처리와 자연복구작용이 포함된다. 물론 이 작용은 단시간내에 일어 나지는 않는다.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정화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염의 정도가 이느 한계이상이 되면 자연정화 능력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현상태로의 복구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우리들이 쉼에서 무심히 흘려 보내는 합성세제와 살포 같은 화학물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것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파괴범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땅과 물을 염소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클로로페놀이 생성된다.

이번에 페놀유출 사건이 공개된 것은 농도 짙은 페놀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이었다. 만약 페놀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로 인해 전체 식수원이 더 많이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즉시로 생명을 위협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 만은 아니다. 여태까지 많은 오염물질들이 정경유착이라는 장막속에 가리워진 상황 속에서 배출되어 왔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비밀 유출구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염된 환경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사리사욕만을 챙기기에 바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점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결국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건은 환경오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기업 혼자만이 살겠다는 자본주의적,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발생된 것이다. 특히 두산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계열회사가 1천만명이라는 지역사람의 식수원에 산업폐수를 정화 과정없이 방류했다는 것은 한국 재벌의 모습과 자본주의의 만전상태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과 노력에 의해 성장해 온 기업이 국민들의 편익과 서비스 그리고 환경보호에 앞장을 서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기업과의 결탁을 통해 환경오염을 묵인 한다면 우리 환경의 미래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방지 대행업체들은 규모나 기술등 모든 부문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두산전자도 계열회사 내에 두산기계라는 방지시설업체가 있지만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해서 결국 일본의 기술과 기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 방관자의 태도로 일관할게 아니라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번 두산전자 사건은 그 시기적으로 볼때 많은 의문점이 있다. 그것은 이사건이 이번 기초의원선거 직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요즘 수많은 사건들이 한사건이 채 마무리도 되기전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것이다. 그배경에는 표면적 사건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의 소중함을 그것이 사라져 버린 후 느끼게 된다.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그 소중함을 피부로 느낄수 없을지도 모르나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어 버린후 우리는 환경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외대논단

오염한계 넘으면 자연정화능력 상실
환경오염 주범은 자본과 정부

잡아 먹는 진짜 주범은 누구이며, 왜 그런것들을 해야만하는가?

오염물질 중 요즘 신문지상을 요란하게 장식했던 것이 바로 「페놀」이다. 두산전자가 방출한 폐수속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은 특정 유해물질로 규정된 17종 중의 하나로, 석탄산이라고도 부르며 무색의 결정이다. 페놀을 피부에 접촉하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는 소화기나 산성계통에 장애를 일으킨다. 페놀은 심한 악취를 낸다. 악취는 페놀의 농도가 몇리터 당 0.002mg 이상일 때 발생한다. 그러나 페놀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문제는 클로로페놀이다. 이것은 페놀에 염소가 결합한 것으로 페놀보다 훨씬 강한 유독성 물질이다. 그러면 페놀에 염소가 결합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에서는 미생물들을 분해하기 위해 커닝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가며 오직 기업 및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것은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고 그에 준하는 엄격한 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엄격한 벌은 커녕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묵인해온 정부에게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운영을 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일을하는 정부가 아니라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과 결탁해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큰 잘못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환경쪽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정부의 의지를 먼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법처리가 되야 할 것이다.

>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건 이후 숨겨져 있던 환경오염문제가 국민 앞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지고 있다.
>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각각 한국의 환경문제, 독일·일본등 외국의 환경문제와 그 처리방안에 대한 외대인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하 창 호
〈자연과학·환경3〉

햇 글

■반동의 공세와 좌우의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레닌출판위원회편)

1917년경 러시아변혁시기에 있어서 혁명의 과학적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의 논리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책은 레닌의 활동과 러시아혁명운동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비판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이론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을 배격하고 혁명으로 진군하고자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전진퍼낼 7천2백원〉

■한국경제론(한국사회연구소편)

60년대 이후 시작되어 70년이래 본격화된 과학기술혁명이 제국주의국가의 축적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찰해 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국제분업체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을 해명하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 따른 산업기반의 전면적 재조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종속적 자본주의 정부가 채택하게될 반민중적 정책에 대해 민중들은 현실개혁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백산서당퍼냄 7천원〉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혁명사(시바타 마사요시지음·사상과 정치경제연구소편)

제2차세계대전이후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등 반파시즘운동과 봉일전선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 동유럽5개국의 상황을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각국가별로 고찰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에서 일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오늘의 사회주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과학적 전망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퍼냄 4천원〉

테크노 스트레스(Techno Stress)

소금상자

테크노 스트레스는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등 첨단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증세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는 컴퓨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테크노 불안증」과 컴퓨터가 생활의 모든 중심이 되어버린 「테크노 의존증」등이 있다.

자본주의 산업구조는 과학기술혁명의 발달에 의해 고도의 기계화를 이루어 인간을 기계에 종속시키고 있다. 또한, 인간의 순수 노동은 컴퓨터 학습 기회의 차별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과 수준이 떨어져 노동 소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문명 사회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더욱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이윤추구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며 테크노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인간 소외와 노동 소외의 심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책 — 과학과 함께 움직이는 에세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금기시되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번역되어 서점에 진열되고, 「악의 제국」으로 매도당하던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평화의 사도」로 불리워지고 있다. 미국은 걸프전을 통해 국제헌병을 자처하며 이라크를 볼바다로 만들어 놓았고 다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그에대한 다양한 해석속에서 우리의 입장, 대응방안을 곧추세우기란 힘들기 마련이다. 김수행씨의 「정치경제학에세이」(새날·1991)는 현재의 국내, 세계정세를 「정치경제학적 사고」로 해부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이책은 서울대학교의 김수행교수가 대학신문, 연구회지, 일간신문등에 기고했던 글을 5개의 장으로 나누어 게재한 것이다. 대학신문에 실렸던 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책의 가장 기본독자대상은 「대학생」이 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 1장에서 저자는 자신의 학문관과 인생관에 대해 「올바른 이론이 있어야 올바른 실천도 있다」는 입장을 대담과 서술을 통해 뚜렷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학생을 「올바른 이론」을 향해 뛰는 단계로 파악하고, 대학생시기를 앞으로의 인생행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이며, 다양한 대인접촉과 전리추구를 통해 「정권의 앞잡이」를 거부하고 사회변혁의 주춧돌이 되는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힌다.

2장은 마르크스경제학과 주류경제학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집필동기를 「자본주의하 생산성의 급격한 발달을 해명」하는 것이라 밝히고 자본론 전3권의 개요와 함께 아담 스미스, 케인즈등을 대두시켜 속류 경제학을 파헤치고 있다.

3장은 세계정세로 시각을 넓히고 있다. 걸프전쟁, 중남미 외채위기, 파스 아메리카나 등을 예로 들면서 제국주의의 총아인 군산복합체와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제3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선진국내에서 조차 독점자본을 육성하기위해 자행되는 국민경제 파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학문·세계관·세계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4장은 우리의 현실을 점검한다. 여기서는 「신식민지적 요소」부분에 주목해야한다. 미국및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제국주의적 세계 체제 속으로 포섭한 요인을 연대기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저자는 그 요인을 직접적 지배, 국가·자본에 의한 지배, 민간자본에 의한 지배, 국제기구에 의한 지배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관계의 지배와 종속은 다국적 기업→독점자본→민중이라는 창구를 통해 결국 우리사회에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장이다.

5장, 「사회주의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월5만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는 사회주의권 국민의 모습을 간단히 스케치하고 있는 「공산권 기행문」으로 시작한다. 또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현실」의 사회주의를 비교하고 있는데, 현실의 사회주의는 레닌의 유언을 빌려 「관료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관료화를 개혁한다며 오히려 전세계를 미국의 손에 넘기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근본적 제기이유를 「익국사회주의론」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정치경제학 에세이」는 각 글마다 원고지 몇매에 불과한 분량으로 우리앞에 산적한 문제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읽기에 딱딱한 논문의 형식이 아닌 「에세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해」를 내보이며 과학성을 천저히 담보한 에세이는 논문보다 더 치밀할 수 있다는 것을 김수행씨는 이책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학술부〉

승리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제4대 민족사상 해방 동대학생회

통일왕산 5천 학우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광고질서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외대학보사 여러분의 힘찬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페놀에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원하듯, 우리는 돈에 오염되지 않은 건전한 광고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요.

—통일왕산인권복지위원회

1백60아랍인은 외대학보의 광고질서 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냅니다.

—제12대 아랍어과 학생회

광고 질서 회복운동에 힘쓰고 있는 외대학보사 여러분의 힘찬 진행력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진산 학회장 육원수

자주언론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시는 학보사 여러분께 뜨거운 믿음을 보내 드리며 아울러 학보의 주인인 우리학우들도 우리학교 신문이 돈에 팔려 상업광고로 도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외대학우들이 끝까지 싸워서 외대인의 신문을 지켜냅시다.

—루마니아과 학생회장 정용준

식수를 오염시키는 두산그룹의 「기업선전광고」가, 노조탄압을 음으로 양으로 자행하는 삼성그룹의 「인간을 위하는 광고」가 외대인의 신문인 외대학보에 실려서는 안됩니다.
광고질서 회복운동의 선두에선 외대학보 기자 여러분께 강철같은 연대투쟁의지를 보냅니다.

—제4대 애국 인문대 학생회

대학이라는 올바른 가치관과 대학문화의 새로운 질서회복을 위해 나날이 팬대를 더 높이는 외대학보의 광고질서 회복투쟁에 대해 외대왕산 영어과 학생회는 외대의 자랑, 우리의 자랑인 학보를 퇴폐적 상품적인 지면으로 이용하려는 학교측의 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학보사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공동투쟁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제12대 영어과 학생회장 김한서

우리 마인인은 외대학보의 발전과 광고질서 회복운동에 선봉이 된 외대·서강대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빕니다.

—제10대 마인어과 학생회

우리 아프리카어과 학우들은 외대학보의 광고질서 회복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같이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프리카어과 학생회

대학신문은 진정한 대학인의 신문으로서 서야합니다.

—독일어과 과회장 최경호

외대학보 학형들의 학원의 주인이 되고자하는 광고질서 회복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대 대학생활 협동조합

대학언론의 질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불어과 과대표 황지원

건전한 대학 광고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태리어과 조교

쟁취하는 겁니다. 오염된 광고 아닌 맑은 광고는

—제11대 자주 자연대 학생회

체코어과 학우들의 의지를 모아 외대학보의 광고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광고투쟁이 결실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바랍니다.

—체코어과 학생회

외대학보의 광고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자주언론과 정론직필을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서양학대학 학생회

미국의 황금알 차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남한 군수산업의 의혹

지난 3월28일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차세대전투기로 F-16을 최종선택했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 단일사업 예산규모로 최대인 차세대전투기 생산계획이 최종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1단계로 12대의 완제품을 도입하고 2단계에서 36대를 조립생산하며 3단계에서 72대를 면허생산하여 남한은 F-16 1백20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92년부터 9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사업에 든 총비용은 약 3조1천억달러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흔히 FX계획으로 알려졌는데 FX의 F란 파이터(Fighter)의 앞글자이고 X란 전투기기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남한정부는 FX계획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배려로

남한의 군사비 증강은 미국과 남한 독점자본의 이윤획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FX계획, 한반도 군비경쟁과 군산복합체 이해반영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평화군축이 선결

89년 여름에 FX를 KFP(KOREA FIGHTER PROGRAM)로 명칭을 바꾸었다.

FX계획은 82년말에 북한의 주력공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16기 36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장기적인 군사력 증강계획을 세운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 관단에는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존재한다. 82년당시 북한 공군의 주력전투기는 50년대에 생산된 미그19기, 미그21기, 미그23기였다. 반면 남한은 이미 81년에 미국의 최신예전투기인 F-16을 36대나 도입한 상태였다. F-16은 바로 91년에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할 것을 결정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최신예전투기이다. 북한의 미그기들은 이미 제3차, 4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가 보유했던 전투기들로서, 이스라엘이 보유했던 F-16보다 낙후한 F-4팬텀기 앞에서도 맥을 못췄을 정도의 낡은 전투기인 것이다.

따라서 과연 남한의 공군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계획을 세운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은 전투기 도입계획을 세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남한은 88년까지 추가로 F-16기 36대를 보유함으로써 모두 72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시 1백20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8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FX계획의 목표는 공군력의 증강, 항공산업발전과의 연계성, FX사업에 이어지는 FX, FXX, FXXX등의 계속추진, FX에 이어 HX(전투헬기 생산계획)공동추진이다.

여기서 항공기산업발전과의 연계성이라는 목적도 실제로 미국의회와 미군수독점체가 항공기 기술이전을 쉽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FSX계획에서도 항공기 기술이전문제는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 설사 기술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입장에서는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등 독점자본의 살만 찌우게 하는 계획을 민중의 세금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FX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 자체가 한반도를 끝도 없는 군비경쟁의 수렁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FX계획으로 차세대 전투기 1백20대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군비경쟁의 유발요인인데 FX, FXX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군산복합체의 이해만을 반영한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FX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기종선택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16,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18, 노스롭사의 F-20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 청와대경호실장 박종규에게 6백25만불의 뇌물을 바치며 로비를 하였다. 물론 F-20은 시험비행도중 두차례의 사고로 경쟁에서 제외되었지만 6백25만불이라는 거액의 로비자금이 오고 간 것을 통해서 남한의 차세대전투기사업이 얼마만큼 미국 독점자본의 배를 채워주는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F-16과 F-18의 경쟁 끝에 89년 12월 20일 F-18로 기종이 결정되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몇가지 이유로 F-16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군수산업체의 공작은 계속될 것이고 미의회의 승인여부도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차세대전투기사업은 F-18과 F-16가운데 어느 기종이 결정될 것인가는 군비증강논자들이나 군수독점업체들의 관심일 뿐이다.

F-16기 12대를 조립생산하고 72대를 미국면허로 생산하는 남한의 주력업체는 삼성항공으로 결정되었다. 삼성항공은 이러한 84대의 비행기를 주문생산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남품하면된다. 삼성항공은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거머쥐기 위하여 전국무총리 신현화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영입했다는 추측이 무성했는데 실제로 신현화의 취임이후 삼성항공은 곧바로 FX주계약자로 선정되었다.

남한의 군수산업은 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과 함께 온갖 특혜속에서 성장하였으나 그동안 미국의 여러가지 규제로 가동율이 40%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FX계획은 민중의 세금으로 군수산업을 활성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남한에서 방위세가 군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년 14%에서 79년 41.4%, 86년에는 44.3%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였다. 민중의 세금이 대부분인 군사비가 미국과 남한독점자본의 이윤획득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군축이 절실함에도 아랑곳 없이 군축의 흐름에 역행하여 군비경쟁을 가열시키고 긴장상태를 고양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하다시피 하였지만 휴전협정에는 분명 외국으로부터의 신무기 도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미 몇바렐 지적이지만 휴전협정위반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남한정부와 미국이 북한과의 군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뢰구축을 선결과제로 들고 나오면서도 최신예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신뢰구축실행이라는 주장이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최신예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과연 군사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겠는가?

김 창 수
〈평화연구소 연구원〉

——모스크바 시위사태와 소련 정세의 변화

보수와 개혁의 전면 전쟁

외신분석

소련국내상황의 혼란

최근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분열과 혼란은 6년간의 개혁정책의 부작용과 함께 소련을 점점 더 미궁 속에 몰아넣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및 완급에 대해 분분했던 정치 제반 세력간의 논란은 계속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10일 모스크바 동지에서 약 50만명이 동원된 시위는 70년만에 맞는 최대규모였으며 사회적 불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3월17일에 치뤄진 국민투표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제 존속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 당장의 파국 위기는 면했다.

그러나 사태는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것에 불과할 뿐이며 획기적인 경제적 성과물이 전인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혼란 속으로 빠져버릴 위험도 충분히 내재해 있다.

보수·개혁파의 대결

현재 소련 국내 정치 상황은 시아공화국의장 옐친은 타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보수파의 득세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옐친은 지난 3월9일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축출운동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소련 지도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옐친은 「고르바초프가 우리를 속였다. 민주주의적 행복감에 도취하던 시기가 지났다」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아니라 우리의 노선을 찾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옐친을 비롯한 급진개혁파의 대두는 고르바초프의 최대의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말〉

그 다음날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진 「고르바초프 퇴진」「옐친 지지」시위는 보수쪽으로 자리를 굳힌 고르바초프를 비난하는 급진 개혁파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소련의 보수·개혁파의 대결구도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련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보수파는 정치적으로 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주화등 작금의 개혁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편 개혁파는 부진한 개혁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할 수는 있어도 이를 조직화하거나 국가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방존속 국민투표의 전후사정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연방제 존속안은 발트3국을 비롯한 6개 공화국이 참가를 거부한 채 9개공화국에서 소련 유권자의 총 58.3%(약 1억2천10만명)가 찬성표를 던져 무사통과되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당신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어느 인종이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전폭적으로 보장되는 동등한 주권 공화국들의 연방제로 새롭게 갱신되어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련의 모든 국가기관들과 공화국들은 새 연방유지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표현된 국민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으로 투표를 거부한 6개 공화국에도 구속력을 발휘할 것임을 천명했다.

개혁정책의 향방

현재 소련이 처해있는 국내사정은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수·개혁파간에 완전한 승패가 갈라지기는 힘들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6년간의 개혁 개방정책의 결과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는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경제적 상황은 더욱더 악화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련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방세력의 경제지원을 끌어들이려고 고르바초프가 안간힘을 써왔다는 것은 주지해둔 바이다. 그러나 보수파로의 회귀는 필연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보수세력의 저항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련의 전반적인 사회 체제가 급속한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3월29일 속개된 러시아공화국 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에서 옐친 최고회의 의장이 제의한 대통령직 신설 동의안이 거부되어 옐친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강경한 대립 구도를 갖추고 있는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마찰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난제를 극복하려는 정치 지도자및 소련인민들의 헌명한 자세가 요청된다.

이 수 진
〈동구지역 연구학과
석사과정〉

고르비, 개혁정책 실패로 급진개혁·보수파 비판 직면

경제상황·개혁과정의 난제극복이 정치적 과제

옐친을 비롯한 급진 개혁파와 소유즈그룹으로 상징되는 극우보수파, 그리고 중도세력으로서 온건한 보수성향을 띤 고르바초프 지지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르바초프는 6년간의 개혁정책에서 실패가 거듭되자 급진개혁파와 보수파 모두의 격심한 비판을 면치 못한채 난관에 부딪혀 있다.

지난해 말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전격 사임을 비롯해 개혁파 인사들이 대거 축출되고 최근 보수파를 중심으로 정치 지도부가 개편된 바 있다. 3월초순에 발표된 소련 최고권부인 대통령 직속의 안보회의는 구성원 10인 가운데 바딤 바카틴 전 내무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파로 선임되었다.

보수파 쪽으로 급선회한 고르바초프는 과거 개혁파의 무책임성을 비난하고 「법의 유지」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고르바초프와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공조적 자세를 보였던 러시아공화국의장 옐친은 타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보수파의 득세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옐친은 지난 3월9일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축출운동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소련 지도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옐친은 「고르바초프가 우리를 속였다. 민주주의적 행복감에 도취하던 시기가 지났다」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아니라 우리의 노선을 찾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 다음날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진 「고르바초프 퇴진」「옐친 지지」시위는 보수쪽으로 자리를 굳힌 고르바초프를 비난하는 급진 개혁파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소련의 보수·개혁파의 대결구도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련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보수파는 정치적으로 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주화등 작금의 개혁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편 개혁파는 부진한 개혁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할 수는 있어도 이를 조직화하거나 국가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방존속 국민투표의 전후사정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연방제로 바뀌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단지 찬반의 대답만을 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지난 3월9일 언론에서 발표한 기존의 새연방 조약안을 보면 △조약에 서명한 각 공화국은 주권국가로 인정된다 △각 공화국은 외국과 교역및 외교관계를 수립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영토통합, 국방, 군사, 예산, 재정등 21개 항목등에 걸쳐서 각 공화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들은 명목상의 주권인정일 뿐이고 실제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민투표에 임하는 공화국들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리투아니아 등 6개 공화국이 국민투표 불참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 참가한 9개 공화국중 벨러시아, 타지크, 투르크멘 등 3개 공화국들만이 중앙정부의 설문을 그대로 부치고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공화국 대통령을 직접투표하는 안」을 제시해 70%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외에 인구의 8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즈베크, 키르기스등 4개 공화국은 독자적인 질문을 각각 추가시켜 공화국 고유권한을 강화했다. 15개 공화국중에 3개 공화국은 고르바초프식 연방존속, 3개공화국은 완전한 분리독립, 나머지 공화국은 국가연합식 연방등으로 15개공화국은 각기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최고 회의는 「소련의 모든 국가기관들과 공화국들은 새 연방유지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표현된 국민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으로 투표를 거부한 6개 공화국에도 구속력을 발휘할 것임을 천명했다.

개혁정책의 향방

현재 소련이 처해있는 국내사정은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수·개혁파간에 완전한 승패가 갈라지기는 힘들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6년간의 개혁 개방정책의 결과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는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경제적 상황은 더욱더 악화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련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수 진
〈동구지역 연구학과
석사과정〉

용인, 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을 왕산학우의 힘과 지혜로 치뤄냅시다

안녕하십니까? 학우여러분.

용인, 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 의장 애국외대 총학생회장 철학과 4학년 이 국형입니다.

역사의 부름에 어느 한순간 주저하지 않고 화답해 온 살아있는 민족의 기상 애국외대 청년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미국과 노태우 일당이 조국분단과 식민지민족, 강요의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며 우리 민중의 앞길에는 노예의 삶과 죽음의 폐수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독재자, 재벌, 고위관료의 권력을 영구히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친미보수대연합 민자당이 창당된 이후로 이러한 만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외대인을 비롯한 용인성남지구 청년학생들도 이러한 민족과 민중의 대의에 화답해 90년 4·19총궐기투쟁, 5·9동맹휴업투쟁, 8월범민족대회 참가투쟁, 11·25민중대회를 힘있게 치뤄냈으며 91년 더욱 단결된 힘으로 혁신과 도약을 실현하여 노태우타도, 민자당해체의 큰 힘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도약을 선언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5기 용성총련은 지난 3월30일 강남대학에서 91년 용성총련의 청년학생들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대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의원총회에서는 제5기 용성총련 의장을 공식적으로 선출하였으며 91년 상반기 총노선을 결의하였습니다.

총노선에서 결의된 내용은

첫째, 용성 4만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힘있는 조직으로, 노태우와 민자당을 분쇄할 수 있는 튼튼한 조직으로 용성총련을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으며

둘째, 미국의 내정간섭 분쇄와 수입개방 강요, 군사강점철폐, 핵무기추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

셋째, 노태우와 민자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민주도 생존권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노태우, 민자당 독재를 타도하는 투쟁에 전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

넷째,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2개의 한국조작인 UN분리가입을 반대하고 범국민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일무이한 연방제 방식을 채택할 것, 임수경대표를 비롯한 통일인사를 구출하는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

다섯째, 우리 학우들의 학문사상의 자유, 경제복지적 이익을 대변해 싸워나갈 학원자주화투쟁 조직건설.

여섯째, 5기 용성총련 출범식을 외대 용인배움터에서 거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왕산 5천 청년학생동지 여러분!

실의와 도탄에 빠진 우리민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분단 조국의 상처를 치료하여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가.

그것은 이땅의 아들 우리 청년학생이 아닌 그 누구일 수 없습니다.

이제 4월9일 역사적인 제5기를 출범하는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은 희망의 깃발, 승리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 깃발과 불꽃에는 애국외대 5천학우의 의연한 기상과 4만학우의 조국사랑, 민중사랑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우리 5천 왕산학우는 4월9일 4만 용성총련학우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친선과 우정의 인사를 보내는데 결코 인색하지 맙시다. 5천 왕산학우는 4만 용성총련 학우의 선봉에서 자주조국, 통일조국, 민주조국 건설의 함성을 힘차게 울려 전국 백만학도의 모범으로 우뚝 섭시다.

자랑스러운 임수경 대표의 후배들답게 3천리강산을 한품에 넉넉히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의연한 기상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4월9일 명수당 야외무대에서 학우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용성총련의장·총학생회장 이국형

당신도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신(新)귀족주의 광고를 진단한다.

「최고의 품격을 추구하는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 신(新)귀족주의 광고는 고도의 전략으로 소비자를 대상화시켜 상품을 선전해 내고 있다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불과 3,4년전만 해도 TV광고는 그다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상품판매에 있어 선전매체로서 T·V광고의 중요성이 점차 깊이 인식되면서 효과적인 선전방법이 끊임없이 모색·창출되었으며, 정교하고 치밀하게 소비자층의 제품구매를 설득해 오고 있다.

한 때는 외국의 유명 연예인들까지 등장시켜 시선을 끌고자 한 적도 있으며, 또 최근에는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모든 광고들은 끊임없이 소비자들을 대상로 물건을 사라고 외쳐댄다.

그런데요즘 T·V에서는 또다른 양상의 광고를 볼 수 있다. 신(新)귀족주의를 표방하고 등장한 광고가 그것으로 「전통·명가(名家)·기품·명성·품격」등의 단어들을 남발하면서 유림풍의 귀족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동복에서부터 비롯하여 각종 성인복에 이르기까지의 의류 광고, 자동차 광고, 식품 광고, 가구 광고, 시계 광고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광고가 이러한 신귀족주의를 바탕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광고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사라고 외쳐대는 것에 치중했다면, 신귀족주의 광고는 분명 그와 다른 점이 보인다. 얼핏 보면 이 광고들은 전체 대중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들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금방 느낄 수 있다. 「최고의 품격을 추구하는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남성정장」 「당신의 품격을 만족시켜 주는 이태리식 가구」 「어디서나 주인공을 만들어 주는 귀족 취향의 사넬풍 여성의류」 「황금 빛 인생의 여유를 위한 술」 「명가의 기품이 탄생시킨 주방용 오븐 레인지등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품위(?)를 바탕으로 한 고급스런 분위기가 T·V화면에 창출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택된 소수의 여성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라고 선전하는 여성구두 광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은 물건을 사기를 강요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상류층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를 보여 주면서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신귀족주의 광고가 출연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 보자. 우선 이러한 것은 최근 몇 년 들어 확산된 「중산층 의식」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도 중산층임을 인정 받으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산층 의식이 성장하면서, 중산층에 편입되어 하층민과의 차별성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지는 「귀족적 귀속의식」을 노린 판매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젠 상품을 무조건 아무에게나 팔기 위해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판매대상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살펴 보면 이것이 소수의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것은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상승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당신도 이 정통 영국풍의 옷을 입으면 귀족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이 커피를 마시면 품위있어 보일 것이다.」는 식의 선전은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아내며 상품소비로 이어지게 한다. 이는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가지는 신분상승 욕구를 이용한 고도의 판매전략이다.

결국 이 신귀족주의 광고는 중산층과 하층민 모두를 그 판매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엄청난 억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광고에서 일정정도의 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광고들은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광고 속의 세계는 한마디로 가진자들의 세계다. 돈을 쓸데로 다 쓰고 이제 돈 쓸 곳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즐기기 위해 돈을 쓰는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속에서 못가진 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은 찾아 볼 수도 없거니와 일단은 못가진 자들을 소외시켜 버린다. 그리고 나서 「당신도 귀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사라」는 식이다.

로짜르트의 음악이 흐르고 전원의 그림이 있는 곳에서 부도회가 열리며 우아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단지 품위와 기품, 우아한 생활의 멋만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긴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소수의 가진 자들의 이야기다. 그러한 비현실적인 광고를 통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사회 대다수 민중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신유럽풍의 커텐으로 장식되고 명가의 기품이 탄생시킨 최첨단 주방기기가 있는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리고 보석인지 시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시계에, 파려 정통 패션을 능가하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당장 「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렇지만 광고의 힘은 그 이상으로 엄청나며, 심지어 게인을 광고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위력까지 가진다.

광고는 하루가 다르게 그 형식을 바꾸어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더우기 요즘 TV를 장악하는 광고는 단순히 상품을 선전하고 판매하려는 외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대중은 올바른 비판의식·사회의식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에 세뇌(?)되어 사상과 의식, 생활양식은 변질되어 간다.

무비판적으로 보고 듣는 광고는 이렇듯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대중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을 방해한다.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광고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한 지금이다. 광고 속에 펼쳐지는 품위있고 멋진 세계는 저급 이 사회의 현실이 아니라, 자본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이기에 이 또한 자본의 논리가 낳은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인 것이다.

〈황효순 기자〉

중산층 의식 이용한 고도의 판매전략

우리말의 쓰임새 (202) 비끼다

「…석양이 비낀 검푸른 흙을 뜻을 나누는 사람의 흰말과 함께 가지런히 밟고 갈 때…」(신동엽의 「젊은 시인의 사랑」)

이 때 「비낀」은 「엷으로 비스듬하게 비친」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비끼다」는 이 외에도 어떤 것이 비스듬히 놓이거나 늘어질 때도 「산마을엔 저녁 연기 가로 비끼는구나」와 같이 쓸 수 있으며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잠시 드러나는 경우를 가리킬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웃는 얼굴에 비끼는 슬픔의 그림자」와 같은 경우이다.

「어떤 것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다」라는 뜻을 지닌 「비키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극장 「학전」을 찾아

문화기여도 ○점의 소극장 「학전」

학전」은 새로운 실험적 공연을 추구하지만 내용에 있어 속알을 채워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공연장면)

내용 부재에 부담감만 가중

진솔한 삶 표현하는 열린 공간 돼야

『로구 동숭동 대학로의 높고 낮은 담벽에 붙어 있는 각종 포스터. 어린이 연극에서부터 작은 콘서트 미술전, 연극을 공연하는 소극장이 나나 있다. 바로 3월 중순에 개관된 소극장 「학전」이다.

소극장 「학전」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유중 하나는 70년대 대표? 민중가요인 「아침이슬」의 작가이자 지난해 「겨레의 노래」출연 출수 맡았던 김민기씨가 이 소극장의 대표라는 것이다. 이는 비장한 노래로 암울했던 시대를 형상화해낸 김민기씨가 그간 침묵을 지켜오다 「겨레의 노래」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중문화 활동을 시작하는데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2백여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는 소극장 「학전」을 찾았을때 4월3일부터 7일(일)까지 공연되는 노영심씨의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더러는 나이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젊은 대학생들의 관객의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극장 「학전」의 무대에는 어떤 공연물들이 올려질까?

『기존의 소극장에서 기획하는 대다수의 공연물들이 연극이나 콘서트 중심인데 반해 저희 「학전」은 이러한 방식을 탈피, 다양한 개개의 예술분야를 접목시켜내고 새로운 형식을 찾기위한 실험적인 공연들이 올려집니다. 예를 들면 춤과 비디오의 만남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소개하는 등의 공연이 올려지죠』라고 「학전」의 총무인 강신일씨는 말한다.

2년전부터 개획되어 올 3월에 개관한 「학전」은 「겨레의 노래」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학전」의 스탭들이 대부분 「겨레의 노래」사업에 동참했던 경력자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씨는 『겨레의 노래 사업이 세대와 계층, 지역적 거리감을 뛰어넘어 온 겨레가 다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는 사업이었기에 대중들이 편안하고 쉽게 누릴수 있는 문화양식을 찾는다는 면에서 「학전」은 「겨레의 노래」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3월15일 김덕수네 사물놀이 「소리굿」공연을 처음으로 해서 최근의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학전」에 올려진 공연들의 내용은 그리 흡족하지만은 않다. 앞서도 말했듯이 「학전」에 올려지는 공연내용이 여러 예술분야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시킨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전」의 공연물들은 연극, 콘서트 중심이다.

또한 공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인재보다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중심이어서, 외형은 소극장이지만 실상은 대규모 공연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관객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에 「학전」은 폐나 고급이다. 예로 노영심씨의 「작은 음악회」의 한사람당 입장료는 7천원이며 이 표도 예매하지 않으면 구하기가 쉽지 않다.

「소극장」이라는 문화공간 형식은 기본적으로 관객에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각계급 계층의 숨가쁘게 돌아가는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늘 새로운 실험과 창조의 정신을 발휘하려는 진보적 예술인과 관객과의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로의 많은 소극장들과 「학전」은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잡고 있지 못한 듯하다. 인간심리분석을 가장, 퇴폐일색으로 변색해 가는 연극, 애꿎은 사랑타령으로 젊은이들의 살아있는 넋을 잠재우는 음악회. 그속에서 진정 분주히 뛰아가는 세상살이 진솔히 그려내 무대위에 올리는 공간은 얼마나 될지 손을 꼽아 보지만 아직은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예술극장 「한마당」 「그림마당 민」 「형화마당 우리」등의 작지만 알찬 공간들이 계속 확장되어 간다면 바쁜 세상살이의 진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연희 기자〉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⑳

〈하늘은 맑고 여기저기 개나리는 피고…. 따뜻한 햇살 받으며 학교를 향하고 있었지만 병수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다. 와, 이런 날씨에 수업을 들어야 한단니./ 놀러나 갔으면 딱 좋겠다.

순간 병수는 공중전화박스로 뛰어가 다이얼을 돌렸다.

『용구니? 응, 나 병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러나 갈까?』 『갑자기 어딜 놀러 가자고? 너 오늘 수업없니?』 『수업이야 대충하면 되는 것이고. 수업 있으면 얼른 학교 나와 친구에게 대충부탁하고 우리 12시에 시계탑에서 만나자. 나도 교양과목 대충시키고 나갈께〉.

혹시 화창한 봄기운을 못견디고 수업을 뒤로한 채 봄을 즐기는데 급급한 학우들은 없습니까?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요즘 대리출석을 하는 학우들이 늘어간다고 하는군요.

사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대리출석을 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대학인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대리출석으로 우선의 결석처리를 모면하기 이전에 부득이 하여 수업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교수님을 찾아가 미리 말씀드리는 작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부〉

알찬 방송 빠른 보도 외대교육 방송국입니다. FBS

외대교육방송국 개국30주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방송국이
30살이 되었습니다.
30이면 이제 스스로 서야 할 나이.
자유에 대한 믿음,
민주에 대한 열망을 담아
앞으로도
보다 뜻깊은 방송을 보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대발전 그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행정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직원노조

무원칙한 행정체제 지양하고 합리적 안이 필요
직원문제에 관한 학내주체 연대방안을 강구해야

보도기획

직원의 행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학내 제주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대학은 교수·직원·학생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체인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가 곧 대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중 외대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직원들의 집합체인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이 구성되어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재단의 비리로 대표되는 대학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 요소로서 존재하는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권위적 분위기 일소—하고 있지만 단순한 처우개선및 임금인상등 경제투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 직원의 인사제도 및 학교 행정제도, 각 구성원 집단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영합리화의 문제를 분석하여 직원 또한 학원자주화를 이끌어나가는데 한 인자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계획성없는 직원인사

지난 3월4일(수), 직원인사 발령이 단행되었다. 매년 3월과 9월이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단행되지만 원칙없는 인사단행으로 직원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90년 대학당국과 합의한 단체협약서중 인사의 원칙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자격·업적·시험성적·근무성적 및 기타능력의 객관적 실증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단행된 직원인사의 이동을 살펴보면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인 대학당국의 낙하산식 인사가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에 인사내용과 관련,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첫째, 직제상 공석인 과장보직 1명에 대한 승진이 없었다. 과장1명, 직원1명으로 이루어졌던 비서실이, 비서과장이 대학원 사무과장으로 이동발령이 된후 직급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서실 비서실장 직무대리로 충원이 되었다. 이것은 직원사회의 성취도를 제약, 직원을 단순한 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부서업무의 단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적과의 경우 제반 학적사항, 재입학, 복학, 휴학, 학점관계 등의 상담이 가장 많은 새학기에 담당직원 1명만 남기고 과장, 주임, 담당직원 2명을 교체함으로써 학적과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또한 출판과의 경우도 주임1명을 제외한 부장, 과장, 담당직원을 교체하여 한 조직내에서 4명중 3명이 교체되었다. 셋째, 잦은 부서이동에 따른 직원의 전문화 결여문제이다. 입부이나 1년만에 무려 네부서를 옮긴 직원도 있어 업무의 장기적인 계획추진이나 학교발전을 연구해 볼 겨를은 커녕, 미처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기도전에 이리저리 부서를 이동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인데도 일반직원들과 혼합인사가 단행되어 전문 사서직의 인사체를 야기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전체 직원의 인원감소에 따라 노동강도가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문제이다. 증가한 학생수에 반하여 학생과, 홍보과, 관리과 직원이 1명씩 감소했으며 특히 용원직 인원이 절대적 부족상태인데도 많은 인원을 기능직(온실, 체육실, 인쇄실, 목공실, 기관실등)에 배치함으로써 용원직 충인원 61명중 40명의 제한된 인원이 각 건물의 교수연구실, 행정사무실, 강의실, 교정전역을 청소해야 하고 각종 행사장 준비지원까지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섯째, 하루만에 인사명령이 빈발되었다. 3월6일(수)자로 학생처학생과 취업보도주임으로 발령난 사람이 3월7일(목)자로 다시 용인 비상계획관실 비상계획주임으로 이동·발령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취체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쇄신할 뚜렷한 방안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이상 장기근속하며 외대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은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함에도 「인사부처 차원에서는 소폭이었다」 「총장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등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용인 총무처장, 직원노조합장및 수석부조합장과 총장이 임명한 위원 5명으로 직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인사승진심사의 경우 승진대상자를 2~3배수로 추천하여 제반 자격요건을 공정한 선에서 심의,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정된 특정 1인씩에 대한 승진자격 찬반투표만을 실시하고 있어 사용자 중심의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Ⅱ. 원칙성 부재한 행정체제, 경영합리화

대학의 행정조직은 대학의 목적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활동체계이다. 그러나 본교의 행정체제는 불명확한 업무분담으로 각 부처간 업무가 중복되는등 학사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처와 교무처, 여타부서와 총무처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한가지 사항을 2~3개 부서를 거쳐도록 편제돼있어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학생들이 강의실을 사용해야할 경우, 학생처에서 「교사사용허가원」의 용지를 받아 지도교수의 서명후 교무처에 접수 시켜야한다.

또한 각부서들을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지원하는 총무처의 경우 총무과및 관리과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데다 건설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하여 건설부를 학교시설및 총무처 산하 후생복지계를 후생과로 승격·확대시켜 과장직을 신설하고 총무처장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구매, 총무업무등 이질적인 업무의 혼합으로 전문성의 결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신속성의 결여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 대학경영합리화를 위해 대학당국은 직제개편을 단행했는데,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자연감원(이직 또는 정년퇴직)등의 점진적인 방법을 통한 직원주의 감축·통합이 절실한 부·실의 순차적 기구해체또는 통합, 부·실간의 인원조정, 부·실간의 업무조정을 들수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는 단순한 인원감축과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 직제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보다 원활하게 대학이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18일(월), 19일(화) 양일간 직원노조가 실시한 「91업무및 노조의 올바른 사업방향을 위한 전조합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과반수이상(75.1%)의 조합원이 「근무에 만족하지 못하고」있으며 「인사의 공정성이 가장 불만족한 사항(98.6%)」으로 나타나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은 심각하다. 또한 「대학이 교육주체로써 학내에서의 민주화와 학외적으로 재단, 교육부로부터의 자율화를 요구, 행정권의 독립(98%)」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Ⅲ. 맺음말

현재 직원들의 조직인 직원노조가 활성화된 대학으로는 대학운영전반에 교수·학생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조선대 노조, 지난 88년 전국대학에서는 최초로 총장선출에 주체적 참여를 실현한 세종대 노조(「총장선출 이론수립회」에 교수·학생대표와 함께 5명의 노조대표가 참가하여 총장후보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이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도든 문제가 대학의 자율적,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고 있는 교수·학생·직원들에 의하여 서서히 전환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 변환적 시대에 직원들은 대학당국의 비민주적인 인사관리에 합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당국이 학사행정에서 누리고 있는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견제함과 동시에 학교행정 실무주체로서 구태의연과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 건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학원공동체 건설의 한 주체로서 의식함양이 요구된다. 또한경영합리화라는 미명아래 직기개편, 기구축소, 직원의 임원학과정에 대해 학생에게도 공개하여 지지·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며 반목과 질시를 끊고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의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김상권기자〉

글싣는 차례

1. 학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학생회
2. 민주적 교권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3. 경영합리화와 직원문제
4. 대학민주화에 기여할 대학원의 역할
5. 대학 후원 사업의 문제점과 동문·학부모의 참여방법
6. 무능한 재단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생활안내

8 체육기자재 이용방법

●모의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예선에서 참패한 파도있을테고, 결승까지 올라갔다 준우승에 머무른 파도 있을 것이다. 1등이건 꼴등이건간에 자기과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었을 것이다. 모의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각 과에선 축구공 등 체육기자재가 하나정도는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요즘, 신입생을 위한 과행사들이 활성화되면서, 족구·야구 등 구기종목은 과학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경기를 잘끝내고 보면 이러한 체육기자재가 분실되어 자신이 직접 구입해서 새것을 반납해야하는 약간은 억울한(?)경우가 발생한다.

●체육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것이던 타인의 것이던 「학생증」이 필요하다. 학생증을 맡기고 체육기재실에 있는 카드에 자신이 빌리는 체육기자재의 종목및 갯수를 기입하면되는 간단한 절차이다.

이러한 방법은 체육기자재가 꼭 필요로 되는 경우, 즉 체육시간 등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때로는 불합리한 폐단을 낳기도 한다.

예를들어 자신의 「학생증」을 분실했을 경우 「학생증」이 타인의 손에 들어가, 이 사람이 체육기자재를 이용하고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았을 때 「학생증」의 실제 소유자는 재학중명서 등 제증빙서류를 뗄 수 없으며, 이후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은 체육기구를 사내야한다.

●체육기자재는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위해 구비해놓은 학교의 공공 기물이므로 사용하는 사람이 손상을 가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절차상의 불합리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본교에 구비되어있는 체육기자재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있고, 그 수량마저 미비해 실제 필요량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므로 남은 장비의 전격적인 교체와 보자라는 물품의 완비가 필요하다.

사다리 ⑦ 사회계열 취업현황과 준비

본 대학교의 90학년도 하반기 취업현황은 상경대가 전체취업률 91.1%, 순수취업률 71.1%이고 법과대가 전체취업률 58.9%, 순수취업률 36.5%이며, 정책과학대가 전체취업률 74.6%, 순수취업률 59.5%이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순수취업률에 있어 상경대가 4.1%감소, 법과대가 8.1%감소, 정과대는 16.2%증가된 것이다. 법과대학 감소의 원인은 예년에 비해 졸업생수가 40여명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계열 학생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그룹사 및 대기업에 106명, 보험회사 46명, 은행 23명, 증권및 제2금융 25명등 금융업에 94명, 일반기업에 71명, 공사 및 공무원에 15명, 광고·언론출판에 9명 리스 7명, 외국인회사 4명, 전학 56명, 유학 9명, 고시준비 19명, 군입대 28명등이다.

이들의 취업경로는 만수정도가 추천에의한 제한된 공채와 완전공채, 연고자에 의한 추천 인턴사원제도로 구분된다. 이중 인턴사원에 의한 취업이 '91년도에 16명이나 되어 이에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지원시기 별로는 인턴사원은 5~6월에 특별추천은 8월에 공채는 9월~10월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계열 학생들의 관심은 학교내의 기업에서 의뢰한 제한된 공채를 위한 추천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 추천장, 다시말해 회사로 부터 소수의 추천을 의뢰받아 배부하는 입사지원서를 대개 한두번, 많게는 네번까지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입사시험방향을 이해하고 전형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만 갖추어 진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회사의 입사전형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출제방향과 의도, 그리고 면접과 적성검사의 요점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회사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필기시험이 없는 서류전형, 면접으로 전형하는 회사를 선택하며, 성적이 불리한 학생이라면 필기시험을 치루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좋다고 해서 필기시험이 없는 회사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한 회사에 응시할 기회가 꼭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만적으로 영어, 전공(경제·경영·법학·행정), 상식등을 공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것은 약간의 회사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계열 수험생들은 회사선택에 있어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몇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회사에서의 자신의 발전가능한 한계를 고려해 보라. 둘째, 자신의 성격과 건강에 대한 업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한다. 셋째, 입종이나 기업의 미래관을 탐지하여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생각한다. 넷째, 급여 및 후생복지를 고려한다 다섯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를 고려한다. 여섯째, 독립된 기업을 운영하려면 먼저 유사한 업에서의 경력을 쌓기위해 과감히 중소기업, 소규모 무역회사를 선택하라. 또한특별한 적임을 갖기위 회망한다면 발전가능한 미래산업을 선택하라. 이것은 사회계열의 행정·기획부문 마땅히 가능한 분야일 것이다.

권오광
〈학생처 취업보도계〉

외대학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소속 만화기자들이 보내온 축하 만평입니다.

■국제대학보 악바리

■중앙대신문 준구

■시립대신문 한심이

■상명여대학보 영실이

■성균관대신문 깡깡이

■광운대신문 말뚜기.

◇교과과정개편 방안 모색

사업풍족 주체부족 교과과정 개편

교과과정개편에 대한 논의의 계승 이루어야
각 단위 주체발굴 및 조직체계 건설 시급

심층분석

교과과정 개편에 대해 필요성은 인지하나, 실제로 이를 이끌어낼 주체와 개편에 대한 계획적 검토가 부재하여 교과과정 개편작업이 미진한 상태여서 이에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월28일(목)에 함의된 학원민주화사항중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교과과정을 개편할 때 이와상응하여 구성될 학생측 기구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단대단위의 인자나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중앙단위 사업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교과과정개편 논의는 학생유동이나 복학생을 고려해 4년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본교는 지난 88년에 연구작업에 착수, 89년 2학기에 일련의 교과과정개편작업을 끝낸바있다. 이.과정에서 교과과정개편에 대한 논의가 과단위까지 활발히 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교과개편연구를 해낼 수 있는 사업체계를 꾸리지 못해 그간 침체상태에 있다가, 이번 학민함의사항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 중앙·단대·과단위 교과과정개편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교과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요구는 정당한 「학습권」으로 인정되기 보다 「교권침해」로 간주되어 묵살되거나,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건의차원에 머물러 형식적인 수용에 그쳤다. 따라서 교과과정개편의 목표가 직접적으로는 진보적이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획득하는 데 있지만, 이와함께 그 과정에서 교과과정을 비롯한 수업의 편성과 강의의 진행이 대학당국이나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전제로 해 교수·학생이 동등한 교육주체로 나란히 서는 것을 깨달게 하여 학생이 수업에 있어 피동적인 수용자로 머물지 않고 교수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능동적 자세로 전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전공교과개정 개편은 각급 과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전공당연직 위원장이고, 그 아래 교과과정 상임연구원(1인)과 교과과정 심의위원(각 단대 학장보)로 구성 (단과대별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된다. 현재의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과거 본교가 단과대학 체제시에 구성되었던 것으로 종합대학 승격이후에도 그대로 본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제반 운영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교무처에 소속되어 있는 교과과정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용인캠퍼스에는 87년부터 「교육개선위원회」를 운용해왔다.

본교는 교과과정개편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같은 교과과정개편 구조는 교육의 실질인자인 교수·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보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교수·학생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행정편의적인 방향으로 흐를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과과정개편에 대한 참여요구를 보장하고 있는 학교는 다수 존재한다. 동국대의 경우 89년 2월에 제정된 교과과정위원회에 대한 규칙은, 우선 그 조직체계를 학원자주화투쟁 중앙위원회 산하에 중앙교과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단대교과과정위원회, 각 과단위교과과정위원회를 두고, 학과단위 교과위에서 교과목의 개폐를 결정할 수 있고 중앙교과위는 각 학과교과위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고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개설 교과목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학과와 대학의 교과위는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수학점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중앙교과위에서 한다.

이밖에도 교수초빙과 서류검토, 초빙교수결정을 위한 복수후보추천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의 최종결정을 중앙교과위에서 심의, 총장에게 제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관건으로 작용하는 단대및 과위 주체발굴에 있어 경희대는 많은 성과를 낳았다. 89년 2월 중앙교심위를 설립하면서 그해 8월전공교과개편으로 시작된 교과과정 개편작업은 23개과에서 교심위 주체를 내왔고, 전공개편안은 모두 학생측이 제시하였으며 90년 교수공채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교과과정개편을 위한 작업은 설문조사를 통한 교수·학생의 의견을 결집하여 교과과정개편에 대한 교양작업을 전행하면서 연구작업을 병행, 교과개편에 관한 주체를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개편은 광범위하게 전행되어진다. 즉 단순히 진보적 교과목을 개설하는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교수영입, 어용·무능교수퇴진과 함께 강의내용의 질적 발전을 기할 강의평가제 등 내용과 형식에 있어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교수에 걸맞게 짜여지는 교과과정, 학생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개설과목과,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학문에 못미치는 강의내용으로 가르치는 등 학원 내 그릇된 학문풍토가 사라진다면, 현재와 같이 교수채용에 학생들의 참여를 「교권침해」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나, 자신이 배우고픈 과목과 교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 무관심해져버린 「기형적 학문탐구자세」는 외대내에서 말끔히 청산될 것이다.

〈신나영 기자〉

◇직원노조 임금협약 실태

임투 돈문제 아니다

91학년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이 대학당국과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의 입장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단순한 임금인상문제로 간주, 어려운 재정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대학당국과 직원의 재권리 획득과 이에 따른 처우개선 그리고 이를 제도상으로 보장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인 표준 생계비를 확보하려는 직원노조의 의견 대립은, 학생들의 등록금만큼 직원들에게는 절대적인 사안이 되고있다.

올해 임금협약단체 교섭의 가장 큰 쟁점사안은 임금인상률 책정 문제이다.

80년부터 시작된 용인캠퍼스 건설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88년까지 타대학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던 본교 임금인상률은 89년 「단일호봉제」가 도입되면서 평균수준에 가까스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의 임금인상률이 타대학 평균치인 두자리수도 되지못하는 8.5%에 머물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본교의 임금인상은 대학당국의 압력으로 제 위치를 찾지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87년 결성된 대학직원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은 직종간 갈등의 해소, 임금의 공정 배분과 「상반하후원칙」의 관철을 위해 전행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정액」개념이 시도되었다. 정액인상을 원칙화함으로써 상반하후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직종간 임금격차는 자연스럽게 줄게된다는 것이다.

본교 직원노조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액부분을 첨가해 이번 임금인상률로 정액 3만2천원과 정률 17.0%를 향하여 제수당 20.67%를 제시했으나, 대학당국은 정액인상은 불가하고 정률 또한 12.7%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단체협약 회의 모습

다음으로 기능직원의 1년 승급적용 호봉문제가 지적됐다. 88년 이전에 고린 고용원에서 고원과 용원으로 직급으로 분류돼있던 사무·기술직과 기능직은 89년 단일호봉제가 실시되면서 정식으로 사무·기술직과 기능직으로 나뉘지고 부서직급에 포함된다.

이전에 똑같은 고원급으로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던 사무·기술직과 기능직의 호봉직용이 이로인해 사무·기술직은 1년, 기능직은 1년 6개월 승급으로 조정되고 말았다. 운전, 타자, 교환을 맡고있는 기능직원들은 대학당국이 시행한 재무·기술직과 기능직의 모호한 분리로 인한 승급직용의 차이로 근무의욕 저하와 위화감에 빠져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이 문제도 재정문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의 경우는 직종이 사무·기능·고용직으로 분류돼 있고 차등없이 직능별 단일호봉(1년승급)을 적용하고 있고 오래 근속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승진문제에도 직원노조가 능력별 승진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쟁점사안은 후생복지제도 문제다. 직원노조는 복지제도로 체력단련비 지급, 학자금 보조, 장기 근속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까지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이 요구사항에 대해 직원노조측은 단순히 경제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학당국의 협상태도에 직원노조는 제도보장을 통한 합리적 행정에의 자주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동무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직원의 임금협상 또 한 직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이에 학원 전 구성원의 올바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신승윤 기자〉

폭소 악법

○…잘 짓밟아 보자고 강화한 「꽃병 처벌법」이 모순덩어리로 뒤엉켜 웃음만 자아내는데.

4·3정신 계승집회 후 왕산골 교문앞에는 불발 꽃병 휘둘러대는 용감무쌍한 잠조가 등장해 어이가 없어진 흡산들 이제는 오히려 물대포와 사진기 들고 나서야 할지.

같이 꽃병을 던져도 민초들만 욕아메리는 민자의 속셈음, 악법을 어겨서 께뜬리란 군셈 개혁의지로 당장에 치단해야할 터.

○…민초들의 뜨거운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이져.

내용인즉 민족분단의 책임자인 미국의 국방부 나으리께서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더해가는 한반도에 다 2천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버리겠다는 발표를 한 것.

남북대화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미군주둔」 문제임을 주지할 때, 주권국가인 한국의 필요성은… 「양키 고홍.」

○…「얼굴없는 시인」 박노해씨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안의 화제.

안기부방송에 의하면 지난해 안기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부인과 딸집살림에 들어가면서 시인이 미모의 여인과 사랑놀이를 벌이면서 달이면 달마다 달이면 달마다 정력보장에 힘썼다는 것 얼데 이는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짙어.

「운동권 학생이 성을 희망의 도구화하고 있다」는 안기부의 말, 성을 구속의 도구화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바늘이 부러질 부자님네 심보가 또 한번 이실히 드러났는데.

민초들 먹는 물에 폐놀을 섞다가 들통난 회사의 상품을 팔지도 사지도 않겠다는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람맞을줄 알라」며 협박했다는 게 그것.

식수에 페놀탄 일도 잘못인데, 양심의 가책도 못느끼고 오히려 협박질이라니! 그럴수록 「불매」의 방패는 뚫어지지 않을 것을 명심하시압.

○…높은 분들의 상상불허한 돈놀이가 민초들 가슴에 또 피멍을 새기고 있어.

차세대전투기사업이 답시고 전쟁장난감 사는데 52억불, 교통체증 운운하며 타당성검사도 않고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7조원을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그이유.

노동자임금인상으로 수출안된다고 않는 소리하던 분들이 누구의 쌈지돈을 긁어모아 돈을 뿌릴인지는 너무나 자명한즉, 1조원쯤은 개이름따위로 아는 분들 1만원짜리 한장에 피를 쥐는 민초들이 있음을 각인하시압.

각고의 쌈지돈

비둘기 칠판

이문별

■대중학술 강좌
·때:4월11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5시
·곳:대학원 6418
·수강료:5천원
·신청장소: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실
〈대학원총학생회〉

■새가족모집
저희 여학생위원회에서는 기획부, 교육부, 생활문화부, 복지부에서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여학생위원회〉

■회원 모집
정책과학대 학술행사인 「모의실험」에 참여할 준비위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책과학대 학생회〉

왕산골

■참신한 일꾼을 찾습니다
학원의 제반 문제점들을 고심하여 학원자주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일꾼을 찾습니다.
*학민을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

■정기학생총회 및 체육대회
지난 3월27일(수) 개최 예정이었던 총회와 체육대회가 우천관계로 연기, 4월10일(수) 열립니다.
인문인의 의무와 권리를 정기학생총회에서 인문인의 하나됨을 체육대회에서 펼쳐봅시다.
·안건:회칙개정, 사업계획보고, 학생회 임원 인준
·체육대회경기종목:족구, 배구, 농구, 축구
〈인문대 학생회〉

■단합대회
독일어과 학생들의 하나됨을 위한 봉독체육대회를 4월11일(목)오후 1시에 대운동장에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독일어과 학생회〉

■1차 친선경기
저희동아리가 한심대와 세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웃하신 학우들의 참여가 선수들의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때:4월13일(토) 오후2시
·곳:한성대 실내체육관
〈농구반〉

■투쟁 일꾼 모집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총회를 사수할 사수대를 모집합니다.
·4월 10일(수):총회장소결집
·4월 11일(목)12일(금):총회 사수
·4월 13일(토):해단식
〈동아리연합회〉

동문회

(왕산)
강서고
·때:4월9일(화)오후5시30분
·곳:학생회관 식당

대전향우회
·때:4월11일(목)오후5시30분
·곳:학생회관 식당

(이문)
중경고
·때:4월12일(금)오후5시
·곳:대학원 로비

강릉고
·때:4월12일(금)오후5시
·곳:깡통

〈비둘기 칠판은 여러분의 광고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신청: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212호)

■빈민촌의 실태

재개발에 내몰린 도시빈민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진자의 편에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도시빈민에 대한 반민중적 정책을 고발하고자 이번에 빈민촌 실태에 관한 취재기를 실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본교 독자중에 홍은동 철거현장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글을 투고해와, 본기사와 같은 맥락의 취지하에 실게 되었다.
〈편집자〉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서는 아파트 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해 강제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
〈강인숙 기자〉

철거반, 한밤중 지붕·벽부수며 집비우라 협박

빈민구제 대책없는 재개발, 도시빈민 분노

도시재개발사업과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할 처지에 있는 「철거예정 주민」들은 봄철 이사철을 맞아 더욱 더 살집이 막막해지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도 내몰릴 서울시 장지동 빈민

서울에서 본교 용인캠퍼스로 통하는 길목인 서울시 장지동에는 무허가 변대주택인 「비닐하우스」를 40여동 짓고 8백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5년전 부터 지금까지 모여든 철거민들이 대부분이고, 처음엔 화원을 만들어 꽃을 키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에 주는 물에 빨간 녹물이 나와서 꽃이 다 죽고 화원사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그때부터 이젠 수 없이 빠니이판과 비닐로 집을 짓고 살다가 정착하게 됐습니다』라고 「평화이린이교회」(서울시 장지동 611-2) 김경희 전도사는 밝힌다.

이 지역은 개인소유지로써 주민들은 1년에 한번씩 지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들은 페인이거나 불구자가 적지 않고 날품팔이 노동자들이 그 주류를 이루어 생활형편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데, 먼저 식수는 90년 여름이전까지만 해도 지하수에서 나오는 녹물 섞인 물을 사용하거나 약수를 길어다 먹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번씩 소방서에서 식수공급차가 와서 급수를 해주고 있다.

세탁은 도로변 밑을 지나는 악취나는 하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김전도사는 『하천의 물도 아침엔 그런데로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 빨래를 합니다』라며 『이곳 사람들은 흰 옷을 입지 않는데, 그 이유는 흰 옷은 쉽게 빨간물이 들기 때문입니다』라고 생활용수 사용의 불편함을 말한다.

또 비행장과 차길이 근접해 있어 소음이 심하고 골목길은 시멘트 포장이 돼 있지 않아 비가오면 질퍽질퍽하고, 여름이면 집구조상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토와 어지러움을 수반하는 「하루스병」이 생기고, 쓰레기는 노상방출을 하고 있는 등 비위생적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지껏 구청에서 방역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생활에서도 그런대로 살만해 하며 살아가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 지하철 공사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서서히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막상 이사갈 곳도, 이사비용도 마땅치 않아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속에 가려진 철거작업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는 고층 아파트의 우뚝 선 모습과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허름한 집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괜치 이상한 기분마저 들게 된다.

얼마전 상계1동에서는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 하여 강제로 집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주인들은 이미 복록한 보상을 받아 이사를 했고, 세입자들만 남아 「강제철거」의 설움을 당하고 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철거반 십여명이 망치막대를 들고 몰려와 지붕과 벽을 허물고 빨리 짐을 비우라고 협박을 합니다』라고 상계1동 한주민이 지난 밤의 사태를 되새기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집주인들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각처리해놓은 상태여서 세입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며 단지 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적절한 곳으로 이사갈 형편이 될 때까지 말미를 얻으려는 것이 고작이다.

『전세금 30~50만원으론 이달가도 방을 구하기가 어렵고 조합측에서는 입주권은 커녕, 보상금도 주질 않으니 이젠 아이들이랑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라며 한 세입자 아주머니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며 선진국대열에 참여하는 나라의 수도답게, 여기저기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는 서울 한복판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낙후되고 보기 흉한 집들을 허물고 말끔히 정돈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는 현정부의 「재개발정책」은 서울시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시빈민」들에게 커다란 분노로 다가오고 있다.

〈이희웅 기자〉

빈민촌의 철거 폭풍작전

—홍은동 강제철거를 접하고

독자취재

지난달 28일, 지자체선거이후 최초의 강제철거가 홍은동에서 자행되었다. H아위는 남자들이 대부분 노동판에 나간후 아이들이 학교가기 위해 식사를 하고 있던 아침 8시경이었다. 포크레인을 앞세운 철거깡패 3백여명은 손에손에 해머와 망치를 들고 홍은동의 폭풍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밤상이 내던져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부서진다. 포크레인은 비무장지대를 아무 저항없이 지나간다. 삐만 앙상한 노인이 큰 소리로 항의하지만 곧 깡패들에 떠밀려 내동댕이 쳐지고 그만 기절해 버린다. 서울각지의 소위 양아치패들인 이들은 누군가의 지시하에 1백%완벽한 폭격(?)을 수행한다.

이들이 지나간 잿더미 위에 뒤늦게 도착한 이런 파출부아줌마는 아예 멍하니서 있을 뿐이다. 머리에 서리가 한창인 노인은 흙투성이된 옷가지며 살림살이를 찾고 있다. 깡패들에게 달려들어 팔이 비틀린 아줌마는 덜썩 주저앉아 울다가는 무어라 욕설을 퍼붓는다.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집이 무너져내린다. 그런데도 한 깡패녀석이 줄담다는 듯이 웃고 있다. 나는 통창에서 목구멍까지 차있던 분노를 내뱉으며 달려가 멋진 일격을 가한다. 그러나 해머와 쇠뭉치를 든 그림자들이 금새 그를 친다. …. 모든 집들이 갈갈이 찢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저 멀리 흙속에 가위눌려 있던 나의 옛 일기장이 어슴푸레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이내 길고긴 악몽의 침장속으로….

이 얘기는 내가 11년이상 살고 있었던 홍은동 강제철거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기록이다. 이것은 지자재의 앞날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며, 민중 생존권 유린의 치참한 현실이며, 아울러 권력의 비호아래 자행된 독점자본가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구청, 경찰 그리고 주택조합, 깡패들이 뚤뚤뭉쳐 단결된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까지 협박하고 회유하고 매수하는 등의 지능적인 전략전술까지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이후 범죄꾼들이 경찰과의 연합전선으로 대국민 결사항전(?)을 선언한 것이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결국 이러한 철거정책의 이면에 존재하는 분명한 철거민의 현실은 독점자본가의 확대재생산의 과정속에서 또다른 슬림가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규정지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기득권을 획득한 존재인 우리들이 과연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서, 아니면 더불어 사는 삶으로서 학문과 이상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동양·아랍어3 박근우〉

외대만평

"상층 간부 중심이아닌 학우들을 주인으로 한 밑으로부터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총련 의장겸 전대협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식 (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최초의 경선으로 치뤄진 이번 의장선거에서 당선되어 기쁘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사수하기 위한 대의원들의 자신에 찬 결의를 확인할 수 있어 기뻤다.

40만 서총련 학우들의 단결투쟁의 교두부로서 「상층간부중심」의 사업이 아닌 학우대중들과 함께 투쟁하는 서총련을 만들겠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를 분석하면서 이후 광역의회에 임하는 민족민주운동 진영과 청년학생들의 대응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 선거는 수서사건의 은폐와 이를 계기로 폭발한 기층 민중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현 정권의 사기극이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결과를 빌미로 이후 장기집권·내각제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앞당기려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광역의회에서는 광범위한 「민주대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범국민적 정권퇴진투쟁을 통해 89년에 이루지 못했던 민주정부 수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전대협을 중심으로 각 단위캠퍼스 학생회를 강화하여 이후 광역의회 선거공간을 「대중투쟁의 장」으로 만들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일린 남북고위급회담 및 4월31일부터 5월초까지 개최될 IPU총회를 이용해 현정권은 북방정책에 대해 이데올로기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청년학생이 북방정책을 바라보는 입장과 91년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전망을 밝혀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의 본질은 바로 민중의 자주적 통일논의를 개량화하려는 술책이며, 국민들에게 계속 북방정책의 환상을 조작해서 결국엔 통일운동 자체를 사전 봉쇄하려는 음모이다. 청년학생 및 모든 통일운동진영은 지난해 결성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을 강화하여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주력해야 하고 지속적인 민간교류·자주적 교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에는 UN 단독가입 반대투쟁과 함께 평화협정체결, 핵무기·주한미군철수, 불가침협정 체결 투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어야 하며 바로 그러한 인식위에서 7천만 전민중이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강화된 학생운동탄압 및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탄압을 보면서 이를 분쇄해나갈 구체적 민중연대의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자행되는 탄압의 양상을 보면 그야말로 「멍분」을 가리지 않는 총체적 탄압이다. 이는 민중들의 정치역량이 가속화됨에 따라 반노·반민자당 전선의 약화와 운동진영의 심리적 위축을 꾀하는 것이다.

이에 청년학생들은 일상적 민중연대를 통해 더욱더 강고한 반민자당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결국 탄압에 대처하는 길은 「투쟁」을 통해 분쇄하는 길밖에 없다.

▲각 학교에서는 자주적 학생회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자주적 학생회를 위한 대중적 토대강화와, 아울러 전대협이 「전국총학생회연합」으로 가기위한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누누히 강조했던 것이지만 역시 「단결」의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 각단위 캠퍼스별로 분임토의 과총회등을 강화하여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학우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학생회의 주인은 바로 학우들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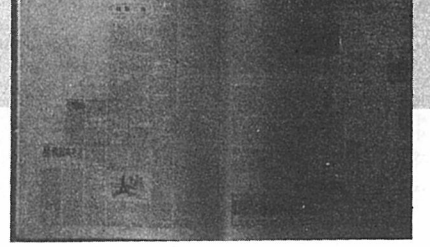
그리고 「전총련」건설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자칫 잘못하다간 「조직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전총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문별·계열별 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그보다 먼저 지역별 학생회의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서총련 총노선의 기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서총련 조직노선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서 학생회를 「학우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의회에 대비해 「민주대연합」 구축과 대중투쟁을 준비하고 그 모든 투쟁의 원칙은 자주·민주·통일에 기반을 둘 것이다. 또한 가중되는 수입개방압력과 UR협상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 대규모의 농민항쟁이 예고되고 있다. 때문에 더욱더 확고한 민중연대를 통해 일상적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박현숙 기자〉

외대학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았습니다



'펜을 버리고 머리띠를 택했던 시절…'

80년대초 전기자 사퇴 사건, 교정지를 들고 당국의 검열을 받으러 뛰어 다니던 시절, 삭제된 원고와 제목이 실려야만 했던 시기, 기자들이 펜대가 아닌 머리띠를 두를 수 밖에 없었던 수차례의 농성, 그리고 잇단 기자와 필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그 모두가 「더 참난 외대학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 「더 외대인을 위한 외대학보」를 만들기 위한 어쩌면 당연한 외대학보 36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외대학보를 지키는 것은 「기자」들의 힘이 아닌 「모든 외대인」의 힘입니다.

지금 외대학보는 우리의 신문을 완전한 우리의 신문으로 만들고자 「광고 우리 것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대학보는 우리 지면에서 모든 억압과 굴레를 벗기고 자유언론과 정론직필이 살아 숨쉬는 외대학보의 새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외대인 모두 앞에 약속드립니다.

—외대학보의 서른여섯살 생일날 아침에—

외 대 학 보

용성총련, 오늘 출범식 개최

8일 사수대 결의·문예일꾼 전진대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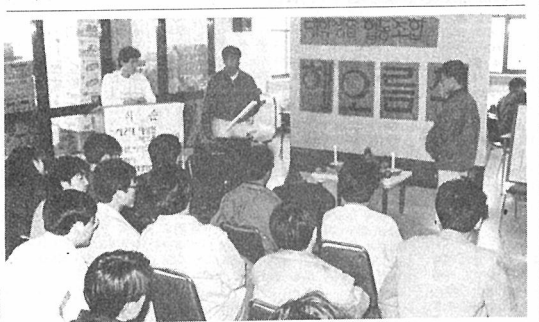
총노선 결의와 반미·반민자당 투쟁 선포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은 오늘(9일) 용인캠퍼스 명수당앞 야외무대에서 「제5기 용성총련 출범식」을 개최, 상반기 반미·반민자당 투쟁을 선포하고 그 결의를 다진다.

이번 출범식에서 용성총련은, 지난 3월30일(토) 강남대에서 열린 대의원총회때 결정한 △용성총련 조직을 강화하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분쇄하고 반미투쟁에 앞장서며 △노정권타도 투쟁에 매진하고 △UN분리가입을 반대하고 연방제통일 방식을 천명하는 조국통일 운동을 전개하며 △학원자주화 투쟁조직을 건설한다는 5개의 총노선을 전체 용성총련 학생들과 공유하며 상반기 대 반미·반민자당 투쟁을 선포하게 된다.

이에대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이며 용성총련 의장인 이국형(인문·철학4)군은 『4만학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사수하고 92·93년에는 노태우정권의 완전타도를 위해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은, 사전행사로 어제(8일)사수대 결의및 용성문예일꾼 전진대회, 용성총련 역사 영화상영이 실시되었으며 오늘(9일)은 12시부터 질뜰이를 시작으로 성남지역 노동자연합 의장 오길성씨 임수경대표, 신장호· 남현진열사 등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행사가 진행된다.



용인캠퍼스 대학생환경동조합(이하 대생협)은 지난 4일(목)학생회관 식당에서 「제2대 대생협 해오름식」을 개최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되는 마음」이란 기치아래 열린 이날 해오름식에서 대생협 조합장 소삼재(시학·루마니아어4)군은 『민족문화, 자주학원건설을 기치로 설립된 대생협은 학우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현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재영 기자〉

동국어 5학과 체육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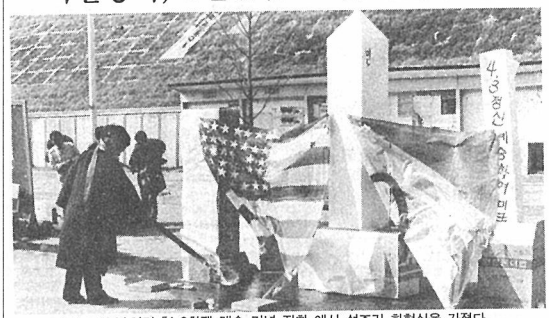
용인캠퍼스 동국어 5개학과(체코, 루마니아, 유고, 폴란드, 할가리)는 지난 4일(목) 대운동장에서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구 5개학과 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축구등 5개 종목을 거룬 이날대회에서 종합 우승은 체코어과, 준우승은 유고어과가 각각 차지했다.

용인, 3일투쟁선포식 가져

4·3항쟁 정신계승및 반미투쟁결의

서울총학, 9일출범·12일 투쟁선포식



지난 3일(수)열린 「4·3항쟁 계승 기념 집회」에서 성조기 화형식을 가졌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4월3일(수)오후2시 해방광장에서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4·3항쟁 정신 계승및 노태우 부패정권 퇴진, 장기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애국외대 투쟁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집회는 4·3항쟁의 전개과정및 현대사적 의의, 현 정세속에서의 투쟁 방향, 구국투쟁 선포문 낭독, 집회 후포 현 가두 선전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4·3항쟁의 현대사적 의의 고찰에 대해 인문대 학생회장 임재권(철학4)군은 『그당시 제주도민들이 외쳤던 민족자주화와 단독선거 반대투쟁은 현 시기의 반미·반독재 노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오늘의 청년학생들은 그날에 억울하게 죽어간 선열들의 뜻을 이어, 이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구국 투쟁 선포문 낭독에서 총학생회장 이국형(인문·철학4)군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며 『노태우 예속 정권을 모든 국민에게 폭로하고 범민족적 반미투쟁을 벌여, 완전한 자주통일국가를 수립하자』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9일) 「정기학생총회및 총학 출범식」을 갖고, 3일후인 12일(금) 노천극장에서 「투쟁 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서울여위, 8일 출범식개최

이번주 총학·정과대 출범식 진행

서울 캠퍼스 여학생 위원회는 8일(월)노천극장에서 고사, 문화공연, 대동놀이 등의 행사 내용으로 「여학생위원회 해오름식및 새내기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조수옥(동양·중국어4)양은 『그동안 학우들에게 열려있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담아 내지 못했던 것을 깊이 자성 한다』다며 『이후 여학우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 자리잡아 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는 오늘(9일) 「정기학생회총회및전교궐기」을 10일에는 정책과학대가 11일(목)에는 동이리 연합회가 진군식을 가진다.

졸준위 「새길」발행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는 지난 3일(수) 「새길」 제14호를 발행했다.

사범대 10, 11일 풍물 강습 개최

사범대 문화는 오는 10일(수), 11일(목), 17일(수), 18일(목) 시청각건물 앞 잔디밭에서 풍물강습을 개최한다.

모의월드컵 법학과 우승

지난 3월25일(월)부터 4월3일(수)까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10회 모의월드컵 대회」에서 법학과가 우승을 인도어과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대회기간중 출전하지 못한 경제학과 학생 10여명이 곱대를 운동장 가운데로 옮겨놓자, 이에 축구부원들의 일부 경제학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구타사건이 발생, 행사의의를 이지러뜨리기도 했다.

용인 동연, 대표자회의 개최

한글·비나리·무술반 신규 인준

용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지난 4일(목)대표자회의를 열고 한글, 비나리, 검도부를 신규동아리로 인준하고 기존의 동아리 스카이다이빙을 동연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규동아리로 인준받은 우리말 연구회인 「한글」 민족굿 연구회인 「비나리」 무술반산하에 있던 「검도부」등 3개 동아리는 「신규동아리 인준을 대표자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에의해 결정된다」는 동연회칙에 의거 50개 동아리중 41개 동아리 대표자의 참석과 이중 28표이상의 찬성을 얻어 인준되었다.

한편 스카이다이빙의 제명결정에 관해 동연회장 손영준(동학·아깝이4)군은 『동연회칙중 정계및 제명조치와 관련, 지난 1년동안 대표자회의에서 무단 불참했으며 교내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자회의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영화상영 안내〈4월9일(화)~4월15일(월)〉

영화명 / 날짜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9일(화)	불타는 욕수 (Next of Kin) (화·금요일, 오후 3시에만 상영합니다)	더 플라이Ⅱ (The Fly Ⅱ)
10일(수)		인터걸(Inter Girl)
11일(목)		프레데터(Predator)
12일(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5일(월)		황가족국대
상영시간 및 장소	시청각 교육원 영사실 (210호)	매일 오후 2시, 이운학과 비데오룸(406호)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과움직임

◎서울 경제학과, 내일 체육대회 개최

서울캠퍼스 경제학과는 내일(10일)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제2회 경제학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용인 철학과, 2일 「자주학교」 개최

용인캠퍼스 철학과는 지난 4월2일(화) 신입생을 대상으로 4·3항쟁 관련 자료집을 가지고 「자주학교」를 개최 했다.

◎용인 독일어과, 11일 「통독체육대회」개최 예정

용인캠퍼스 독일어과는 오는 4월11일(목)전체 학년 체육대회인 「통독체육대회」를 오후를 오후1시 대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리 소식

◎서울 국제민간 외교반, 창립제 개최예정

서울캠퍼스 동아리 「국제민간외교반(PTIP)」는오는 13일(토) 대학원 소강당에서 창립제를 개최한다.

◎서울 「콤퓨턴트」 컴퓨터강좌 개최

서울캠퍼스 동아리 「콤퓨던트(Compuadent)」는 오는 10일(수), 11일(목)오후5시 대학원 001호에서 컴퓨터강좌를 연다.

◎서울 유네스코 학생연합, 도시빈민 사진전 개최

서울캠퍼스 동아리 「한국유네스코학생연합(KUSA)」는 오늘(9일)부터 11일(목)까지 낡은광장에서 도시빈민에 관한 사진자료전을 개최한다.

◎서울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성경강좌 준비

서울캠퍼스 동아리 「대학생성경읽기 선교회(UBF)」는 오는 12일(금)오후5시 사회과학관 307호에서 성경강좌를 연다.

◎용인 유네스코학생연합, 「새물결 운동학교」 개최 예정

용인캠퍼스 한국유네스코학생연합(KUSA)에서는 4월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경기도 이천군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통일과 새물결」이라는 주제로 「새물결 운동학교」를 개최 한다.

이사람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모임으로 학내의 부조리를 견제하는 제야 역할을 하지. 정치에서처럼 합법적으로 힘은 없지만, 교수의 양심의소리 지성의 소리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옛날 서당의 엄격한 훈장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상준(영어과)교수는 특유 어투가 섞여 껄껄한 느낌을 주는 말로 교수협의회에 대해 설명한다.

이상준 교수는 지난 2월23일(토) 교수 총회를 통해 참가한 교수의 만장일치로 이교수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교수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나는 옛날 선비들의 정신, 즉 나라가 어려울때 구국운동에 손수나서고 벼슬아치들의 부조리에 목숨걸고 상소장을 통해 국사를 바로 잡으려했던 그 칼날같은 정신을 깊이 새기고 있지, 내어데 교수생활을 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하고 살아서 후배들이 처장자리에 있고 그럴때도 보직 한번 못 맡아 봤지. 교수들이 나를 뽑은 이유도 그때문이야』

이교수는 작년에 교수협의회 복지위원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교수들이 이

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한다.

『우리학교가 상위권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타대학에 비해 교수연구실, 봉급이 중하위야. 교수들의 사기저하가 지금 심각한데 이후 사업에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교수의 대학내에서 권익을 되찾고 교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게야. 교수들 사기높은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이교수는 현재 언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데 고정연구실하나 없이서 자리를 옮길때마다 연구실을 옮겨다니는 보따리신세, 교수를 위한 복사시설조차없는 상황을 말하며 교수협의회는 다음 봉급지급일인 4월25일(수)까지 새로구성한 복지위원회를 주축으로 봉급협상을 끝맺을 것이라고 한다.

『교수들이 나를 믿고 있기에 이제가 부담다. 대학당국은 교수들이 힘이 없다고 얕보는 경향도 있어. 하지만 다른학교처럼 교수협의회가 몇몇교수들만으로 구성되어있지 않고 우리학교는 모든 교수들이 단합되게 전부가 회원이이서 재단측도 함부로 못하지』며 『재단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개악을 바로 잡는데 동참키위해 곧 사립대학교수연합회에 가입할 예정이야. 또한 이후에 수서비리같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을때 교수들의 힘을 모아 서명작업등에 참가할 계야』이라고 이교수는 말한다.

끝으로 이교수는 『다행히 우리학교는 보직교수와 교수협의회 사이에 마찰이나 알력이 없다』며 『현재 학교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반대로 되고있는데 교수처우개선을 시작으로 외대중흥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을 맺는다.

〈이원영기자〉

『교수 처우 개선을 시작으로 외대 중흥을 위해 힘쓸 터』

〈제5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상준교수를 만나〉

교수들의 시급한 복지개선을 강조한다.

『지난 학기부터 교수봉급문제로 대학당국과 교수협의회 복지위원교수들을 중심으로 고려대를 모델로 삼고 힘의를 밀여왔어. 우리학교가 20%를 올려야 고대수준이 된다니까』

노어 연수에 관한 안내

1. 연수조건
·연수과목:노어
·연수기간:1991. 6.22－7.28(5주)
·연수장소:소련 모스끄바 뿌쉬낀 러시아어대학
·수업시간:매일 4－5시간(주당 18－22시간)

2. 소요경비:2,058＄
·왕복항공료:1,550＄
·교육비 및 기숙사비:435＄
·식사비:100＄

3. 학생선발
·선발대상:러시아어를 최소한 3년이상 학점을 취득한자
·선발인원:15명
·지원기간:외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이문동 본관2층)
·제출서류:국문 이력서(연락처 기재)1부, 영문 성적증명서 1부
선발일자 및 방법:추후 개별통보

4. 연수내용
·러시아어문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연수
·전공과정과 세미나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학칙에 위반되는 학생은 퇴학처분을 당할 수 있다.
·교과과정을 완전히 이수한 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장

재학생 과정(일본어) 모집 요강

1. 모집학과 및 인원:일본어(1개반)25명

2. 교육일정
1)기 간:1991. 4.15(월)－1991. 6.21(금) (10주)
2)교 육 시 간:1일3시간(18:30－21:20)
3)주당수업일수:5일(월요일－금요일)

3. 지원자격:본교학부 재학생으로 지망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4. 선발방법:등록순 마감

5. 수 강 료:135,000원 일시납
＊일어강좌 소개
＊·〈강독〉〈시사일어〉:일본어의 제반 필수 기본문법과 다양한 표현구조를 학습함
·〈언 어 실 습〉:Tape를 통한 정확한 발음의 이해와 청취력 향상을 꾀함
·〈회화Ⅰ〉〈회화Ⅱ〉:교재를 통한 기본 회화력의 향상(Ⅰ)과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Free talking에 치중(Ⅱ)
〈회화Ⅰ〉〈회화Ⅱ〉의 경우, 교수진은 모두 일본어의 Native Speaker임

＊강의 시간표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16:30－21:20	강독	회화Ⅰ	시사일어	회화Ⅱ	언어실습

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의 외국어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년 4회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람.

문의처:외국어연수원 961－4174, 4175

외국어연수원

노동의 장엄함을 보여준 철강지대

서평

정화진의 노동장편소설

「철강지대」를 읽고

지금 당장이라도 인천에 가보면 거기엔 여전히 소설 「철강지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열심히 땀흘려 일하며, 사랑하며, 삶을 사르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리라.

문득 버스와 택시, 엄청난 승용차의 긴 행렬로 늘어지고 있는 서울의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거대한 콘베이어 트럭과 유조차 그리고 크고 작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기계들을 싣고 분주한 트럭들로 뿌옇게 먼지가 일던 인천일대의 도로가 눈 앞에 선명해진다. 가끔씩 파업 또는 농성중인 이느 공장의 회색 담벼락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는 구호들, 4층 정도의 옥상에서 길게 늘어뜨린 플래카드 등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인천.

조를 이루어 머리띠를 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거대한 기계음들 속에서도 오히려 선명한 그들의 비장하면서도 굳세고 밝은 노래소리가 가슴 안으로 밀려든다.

80년대의 민중소설 특히 노동소설들은 주로 생산직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대한 묘사와 민중의 승리를 예감케 하는 전망의 창조를 위해 쓰여졌다. 그중 87년 인천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며 소설 창작을 시작한 정화진씨의 단편소설 「쇳물처럼」은 당시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노동소설이라는 찬사를 받았었다.

그리고 올 3월 출간된 그의 첫 장편소설인 「철강지대」, 놀라울게도 소설의 시기적 배경은 89년 봄에서 90년 봄까지의 약 1년여이다.

문학계의 많은 비평가와 작가들이 그 시기에 80년대의 엄청난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대변화를 정리해내고 다가 올 90년대를 이렇게 저렇게 전망하고들 있을 때이다. 그때 정화진씨는 「철강지대」의 원고에 땀을 쏟으며 나름대로 90년대의 밝지 않은 소설의 전망을 헤쳐 나가며, 이 땅의 구조적 모순을 변혁시켜 나갈 동력으로서의 거대한 파고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구체적이고도 참된 삶의 모습들을 전형화시켜 낸 것이다.

본인 자신이 노동자이기도 한 정화진씨의 「철강지대」는 소설이 더이상 전업 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후기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문제의 핵심이 노동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운 작품이다.

노동문화가 학생문화를 넉넉히 포용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지만— 「철강지대」 내용 중, 문목사의 방북에 관한 주인공들의 대화에서 읽을 수 있는 소극성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다. 또한 임수경의 방북 시기에, 문신부와 임수경양이 TV화면에 비칠 때의 동남전자의 여주인공들의 무감각은(사실 그들의 고함인 영·호남 지역에 당시 엄청난 수해가 있었으므로 그들에겐 가혹할 만큼 비겨운 생활상의 난제들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지지만), 정화진씨가 보다 개연적이고 포용력을 가진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90년대 앞으로의 양상은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해 내리라고 예측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학생문화가 인생의 일부 기간에 한정되는 문화형태라면 노동문화는 생애 전반에 걸쳐 있는 장기간의 문화 양상이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김명인씨는 「철강지대」를 평하면서, 「이 책이 우리 소설사에 굵은 획을그을 것」이라 했다. 그 이유는 「노동장편소설이라는 희소성때문이 아니라, 근년에 그 어떠한 소설도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 같은 「장엄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화진씨의 「철강지대」를 매우 격관적이고 담담한 필체로 느꼈는데 그 이유는 그간 나왔던 노동소설들이 상당부분 도식적이고 조급한 결말과, 자본가 계급의 묘사에서의 무책임하고 유치하기까지 했던 것에 비해 「철강지대」에서는 특별한 한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도시빈민, 부랑자, 노동자, 농촌출신의 각 인물들이 「맥상중기」와 「동남전자」라는 현장의 틀내에서 개개인 주인공의 전형화가 매우 깔끔하고 조화롭게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여년간 노조위원장을 하며 자본가와 결탁한 어용 노조위원장인 김병만이나, 윤회장 그리고 그의 사위이자 인텔리 출신인 「백산중기」의 백사장에 이르기까지 묘사가 매우 객관적이어서 결코 신념에 치우친 나머지 감정적으로 쓰여진 구석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장편이라는 긴 호흡속에서도 지루하지 않은 삽화가 있고, 시간적 배경인 89년 봄에서 90년 봄까지의 상황이 조금은 암울했던, 전반적으로는 운동의 수세기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록회」라는 친목회 형식의 소모임만으로 건강하고 믿음직스럽게, 결코 소모임이라는 이유로 왜소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혁명적 낙천성」에 의해 든든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까닭이며, 때문에 진정 누구라도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김명인씨의 「장엄함」이라는 찬사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력하나마 「철강지대」의 서평을 부탁받고 개인적인 약속들을 미루고 며칠간 「철강지대」를 매회하며 나의 현재를 반성하는 끝에 이제 하우들에게 90년대 한국 문학이 나아가야 할 당당하고도 장엄한 중심 걸음을 밝혀 준 이 한권의 책을 권하며, 아직 최루탄 가스 한번 맡아 볼 수 없었던 외대의 한 모퉁이에서 부끄러운 서평이 종지부를 찍는다.

홍 기 복

〈사범·한교4〉

수필

물과 맞선 우리들의 봄

교정을 걷다가 아직은 수줍은 개나리를 보고 눈길을 준다. 그 리고 순이 돋아나지 않은 잔디위에 덜썩 주저앉는다. 여기 저기 삼삼오오 들러앉아 두런거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갖가지 상념을 떠올린다.

눈앞에 두개의 커다란 장승이 시야를 막아선다. 눈을 밑으로 돌려 그 밑에 자잔히 깔린 돌들을 본다. 시위할 때 썼었던 돌들이다. 우리조상들은 마을의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거기에 길을 가다가 보이는 돌이 있으면 하나씩 주어다 놓았다고 한다. 외적들이 쳐들어 왔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쌓아두었던 돌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항하여 싸웠다고 한다.

문득, 이제 다가올 4월의 교정을 생각해 본다. 4월이 오면 저기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돌들이 하나하나 일어서서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얀연기를 뿜으며 매캐한 최루탄이 미친듯이 교정안으로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연기와 돌의 시대는 지났다. 드디어, 물로써 민중들을 괴롭히는 어떤 분이 「페놀」에 이어 「물대포」를 엄청난 외화를 들여 직수입했다던데…. 그 물대포가 며칠전 모대학시위에서 최초로 등장했다고 한다. 아!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수돗물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포로 억지로 밀어넣으려는 심산인가? 형광물질도 섞여있다던데….

하여튼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다. 그 많은 최루탄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서있는 저 장승과 같이 우리 학생들도 물대포 하나에 눈 하나 꿈쩍않는다.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간 선배님들의 모습, 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눈총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들었던 화염병, 때로는 경찰들의 곤봉에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도 힘차게 싸웠던 용기, 최루탄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먼저 화장지를 건네주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이미 한 탄압의 광풍이 몰아친다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우리들의 기개이다.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제발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겪었으면…」

하지만 언젠가 최루탄·물대포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투쟁은 피눈물속에서 자라는 시들지 않는 나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로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한 항거를 배우고 있으니까…. 또한 우리의 미래는 선배들의 지난한 투쟁과 우리의 땀의 결실이 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4월 하늘은 눈이 부시게 푸르다. 아름답다. 저 하늘을 우리의 하늘로 만들기 위해, 내가 덮고선 이땅을 우리의 땅으로 일구기 위해, 진정 이땅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이 4월에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비집고 움터 오르는 새싹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난다. 잔디위에 뭉그는 알이 꽉찬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고 꺽쥐어 본다. 하늘을 보며 걷다가 장승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에 쥔 돌멩이 하나를 장승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커다란 키의 장승을 올려다 보며 빙긋이 웃어본다.

홍 영 철

〈동양·중국어3〉

파수대

"6·25 피난 시절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강제철거되고 있는 상계1동

〈강인숙 기자〉

문화 옹달샘

여자는 왜?

—서진영 지음

여성억압의 어제와 오늘을 규명한 책으로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문제의 본질과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문제와 계급·노동과의 관계를 살펴봐으로해서 무관심이 초래한 오늘의 여성문제를 심도깊게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동녘펴냄 값4천5백원〉

언니, 우리 힘내자 알았지?

—크라운전자노동조합편집부 엮음

크라운전자 노동자들은 불법집단해고에 맞서 89년 1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5백일동안 집단해고 철회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이 책은 크라운전자 노동자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그간 투쟁 속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 그리고 구속된 조합원들과 동료들이 나누었던 편지등에 실려있으며 과장없고 정직한 노조원 개개인의 글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사계절펴냄 값3천5백원〉

제주항쟁 1991참간호

—제주4·3연구소 엮음

제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그간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할 가능하게 하는 단서를 마련해 주는 책이다.

제주민중항쟁는의가 현재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좌담과 함께 제주항쟁을 경제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주도한 세력의 성격을 규명하는 논문이 실렸다. 또한 항쟁의 전상을 사진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실천문학사펴냄 값5천5백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기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4월13일(토)과 14일(일) 양일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8번째 정기노래공연을 갖는다.

이번 정기공연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3집을만 수록곡을 중심으로 엮어지며, 현시대의 질곡 속에서도 밝고 굳세게 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한다.

▲입장료:3천5백원

▲연락및 문의처:노래를 찾는 사람들(338—9948)

손 맞잡은 우리, 전진하는 우리

—전국업종 노동조합 회의의 주최

4월13일(토)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국업종회의 노동자들이 문화대공연 「손 맞잡은 우리, 전진하는 우리」가 열린다.

전교조문화국외에 각 업종 노래패와 연합풍물패가 출연하여, 이러운 정치상황 속에서 각 연맹이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극복해 나간다는 주제아래 진행된다.

▲입장료: 2천원

▲연락및 문의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35—2407)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주최

KBS투쟁 1주년을 기념하는 노래공연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가 6개언론사 노동조합 노래패의 참여속에 4월12일(금)KBS 본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열린다.

KBS 노조 노래패를 비롯하여 MBC·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KH내외경제 노조 노래패가 출연하는 이 공연은 90년 KBS사태 당시 널리 불리워진 노래와 언론가요·노동가요등을 중심으로 엮어진다. 방송민주화의 현단계와 과제를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연락및 문의처: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739—7285)

외대학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외대학보 창간 36주년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만3천 외대인과 함께 하는 자리

《용인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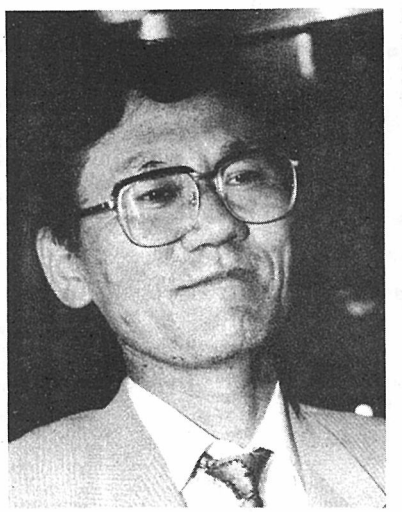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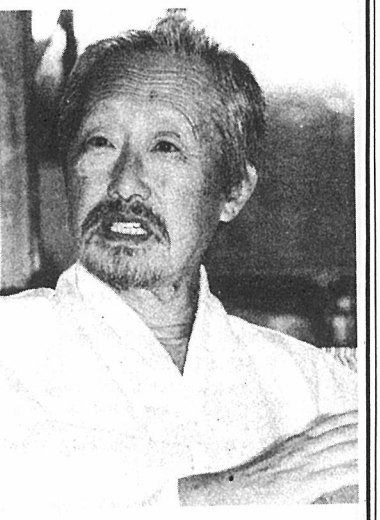
시대의 양심 「이문옥」선생님 강연

·때:4월10일 오후3시

·곳:야외무대

《서울캠퍼스》

통일인사 「문익환」목사님 강연

·때:4월12일 오후2시

·곳:노천극장